



충남도민 “일자리 창출, 올해 가장 큰 도정 성과”

‘2016 충남 사회지표’ 결과 발표... 인구 성장률 전국 2배 육박

충남도민들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충남경제 육성 정책을 올해 가장 큰 도정 성과로 꼽았다.

또 지난해 도내 인구 성장률은 전국의 2배에 가까웠으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16 충남 사회지표’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사회지표 조사는 도민 삶의 질과 생활상, 주거여건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해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정책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실시 중이다.

이번 사회지표는 도내 15개 시·군 1만 5000가구, 만 15세 이상 2만 7939명을 대상으로 지난 8

~9월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신뢰수준 95%, 허용오차 가구조 ±0.81%p·가구원 ±0.59%p)와 통계청,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자료, 충남통계연보 등 다양한 통계를 재분류·가공한 자료로 엮었다.

주요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도내 인구 성장률은 0.75%

로, 전국 0.39%의 두 배에 가까웠다.

같은 해 경제활동 참가율은 66.0%로 지난해보다 0.2%p 상승해 전국 평균보다 3.1%p 높았으며, ‘직업이 있는 도민’ 비중은 60.0%로 전년보다 3.4%p 증가했다.

도민들은 또 올해 도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충남경제 육성’(29.9%)을 가장 큰 성과로 답했으며, 3농혁신이 27.4%로 뒤를 이었다.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 역시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충남경제 육성’이 50.4%로 가장 많았고, ‘복지·교육 실현’은 32.9%로 두 번째로 나타났다.

또 초·중·고 학부모의 교육환경 만족도는 공교육(5.13점)이 사교육(4.85점)보다 높았고, 미취학자녀 보육시설 이용률은 74.7%로 나타났으며, 보육시설 만족도는 6.91점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도민 65.3%는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의 뜻을 표해 올해 도의 양성평등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도민들의 도내 의료시설 이용률은 연평균 13회로 집계됐으며,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은 병의원(72.8%)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도민들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7.82점으로 지난해 2014년보다 0.33점 상승하고, 지난해 혼인 건수는 1만 2331건으로 전년 대비 291건 증가했으며, 초혼 연령은 남자 32세, 여자 29세로 나타났다.

부채가 있는 가구는 36.9%로, 55.3%가 주택 임차 및 구입이 원인이었으며, 주요 자금 출처는 시중은행이 57.4%로 집계됐다.

지난해 도민 흡연율은 23.4%, 음주율은 60.1%로 전년보다 하락했으며, 비만도 26.4%, 당뇨병 유병률 8.2%, 고혈압 유병률은 20.5%로 각각 상승했다.

조원갑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사회지표 조사 결과는 각종 업무계획 수립이나 예산 반영, 정책 개시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민 맞춤형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센터 개소... 행복 충남 만들기 본격화
충남도 인권센터가 29일 도청 306호에서 문을 열고 도민 인권침해·차별사건에 대한 권익구제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인권센터 개소식은 우주형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대전인권사무소 한병일 소장, 충남연구원 강현수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충남 발전 전인 ‘4조 3000억대 지역사업개발’ 발굴

지역개발계획 용역 최종보고... 거점육성·발전촉진 60개 사업 제시

충청남도가 최근 ‘충청남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향후 10년 동안 충남 발전을 견인하게 될 60개 4조 3000억 원대 지역 개발 사업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역개발계획은 ‘신발전지역법’과 ‘지역균형개발법’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거점육성형’과 ‘발전촉진형’으로 구분해 수립하게 된다.

천안·공주·보령 등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거점육성형은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에 제시된 40개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36개 사업(4조 942억 원)을 신규로 발굴했다.

지역별 사업 및 예산은 천안시가 삼거리공원 브랜드를 통한 지역 특화 사업 1개 570억 원, 공주시는 고마나무 경관 회복과 갑사·신원사 저수지 주변 관광 개발 등 6개 755억 원, 보령시는 원산도 관광 거점 개발 사업과 천수만 하구 생태관광 개발, 용두 해양

레저단지 조성 등 8개 사업 1조 817억 원을 투입한다.

아산시에는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2개 1505억 원, 서산시는 부장리 고분군 사적화 공원 조성 등 2개 309억 원, 논산시는 논산 국방혁신도시 조성 등 2개 5220억 원이다.

당진시는 패밀리비전타워 건립 등 7개 2582억 원, 계룡시는 향적산권 그린 관광 단지 조성 등 2개 331억 원, 홍성군은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남당항 다기능어항 개발 등 6개 사업 4699억 원이다.

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등 6개 군을 대상으로 하는 발전촉진형은 24개 사업(2251억 원)을 새롭게 발굴했다.

금산군의 경우 인삼축적 제2주차장 및 체육공원 조성 사업, 금산읍 서남부 지역 연결순환도로 등 4개 사업 300억 원, 부여군은 화지산 백제과원 및 둘레길 조성, 국도29호~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등 4개 416억 원이다.

서천군은 춘장대 해수욕장~홍

원항 순환도로 개설 공사 등 2개 380억 원, 청양군은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 등 4개 333억 원, 예산군은 치유의 숲 진입도로 ‘치유의 길’ 조성 등 6개 362억 원, 태안군은 백화산 종합 개발, 북부순환도로 연결 등 4개 460억 원이다.

이번 용역 최종 보고에서는 이와 함께 정주환경 개선,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사업, 역사·문화·관광 자원 개발, 환경보전 및 생태관광 자원화, 사회간접자본시설 정비, 교육환경 개선 등 6개 유형으로 분류한 분야별 사업 추진 계획도 나왔다.

또 그동안 추진돼온 지역개발 132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단계와 실적 조사를 바탕으로 40개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고, 22개 사업은 계획 등을 변경했으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70개 사업은 제척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도는 이번에 나온 지역개발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아 2018년부터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日 ‘후지노키 금동관’ 복원 성공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수준 높은 백제 기술의 일본 전파 증거 중 하나로 꼽히는 ‘후지노키 금동관’이 1500년 전 찬란한 빛을 되찾았다.

충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사업소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2016년 해외 소재 백제유물 복원 사업’을 통해 일본 나라현 후지노키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관 복원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후지노키 고분은 백제 고유 무덤 양식인 횡혈식석실분(굴식돌방무덤)으로 무령왕릉 출토 금제관식과 장식이 유사한 금동관, 백제계 금동신발 등이 출토돼 백제와 관련 높은 무덤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금동관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아말감 도금 등 전통 기술을 활용해 복원에 성공, 더욱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경환 소장은 “후지노키 금동관에 대한 성공적인 복원은 백제가 일본에 전파한 기술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해외 소재 백제 유물 복원 사업을 통해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알려 나가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제역사문화관은 지난 2010년부터 백제유물 복원 사업을 실시, 칠지도와 무령왕릉 환두대도 등 모두 37점을 복원해 전시 중이다.

이번 후지노키 금동관은 내년 상반기 중 상설 전시실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공식포스터 확정

과학·문화 주제 총 2종 확정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017년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금산 인삼엑스포광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공식포스터를 확정하였다.

이번 포스터는 ‘과학과 문화로 세계를 날다’라는 주제에 맞게 총 2종을 확정하였다. 우선 과학과 관련해서는 과학을 통한 인삼의 새

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기 위해 탐구를 상징하는 ‘돋보기’를 사용하였고, 문화와 관련해서는 각종 요리의 레시피로 활용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삼의 가능성을 동서양의 식기를 통해 표현하였다.

또한 반짝거리는 모양의 아이콘을 통해 ‘발견, 가능성, 깨달음’의 키워드를 표현하였고 메시지의 강력한 전달을 위해 심플한 형태로 제작하였다.

조직위에 따르면 공식포스터가

확정됨에 따라 각 읍·면, 관내 시장, 요식업체, 전국 주요 관광안내소 등에 엑스포 홍보를 위해 포스터를 배부하여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직위 관계자는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전국적으로 행사가 집중되는 9~10월 중에 개최되는 만큼 전략적인 홍보로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산-전정만기자

Mission for Human

현대파워텍의 변속기 기술은 인간을 위해 헌신합니다

자동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을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여는 것입니다. 변속기 역시 그 목표를 위해 헌신하여 왔습니다. 현대파워텍의 변속기가 탑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동차의 안전과 통행에 대한 신뢰를 받고, 더욱더 행복한 여행을 느끼는 행복한 자동차 여행을 향유하는 것, 그것이 현대파워텍의 인간을 위한 기술입니다.

HYUNDAI POWERTECH

민주33.7% > 개혁보수17.4% > 새누리15.8% > 국민11.7%

<리얼미터> 개혁보수신당(가칭) 포함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27~28일 이틀간 개혁보수신당(가칭)을 포함한 정당지지도 조사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새누리당을 제치고 2위에 올랐고 국민의당은 4위로 떨어졌다고 29일 밝혔다.

매일경제 '레이더'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 분당 후 잡채 정당 지지도 첫 조사에서 민주당이 30%대 초중반의 지지율로 1위, 개혁보수신당이 10%대 중후반, 새누리당이 10%대 중반, 국민의당이 10%대 초반으로 3당이 오차범위(±3.1%p) 내 2위권을 형성하고, 정의당은 현재 정당 지지도 대비 2.5%p 내린 4.6%,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5.3%p 감소한 13.0%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현재 정당 지지도 대비 0.2%p 소폭 내린 33.7%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현재 정당 지지도 대비 TK(대구·경북)와 호남, 40대와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는 이탈한 반면, 충청권과 PK(부산·경남·울산), 서울, 50대, 진보층에서는 결집된 것으로 조사됐다. 개혁보수신당은 17.4%로 PK와 경기·인천, 충청권, 60대 이상과 20대, 40대,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각각 2위를 기록했다.

대비 6.6%p 내린 15.8%로 나타났는데, 특히 개혁보수신당이 출현하기 전에 비해 PK와 수도권, 충청권, 60대 이상과 40대, 30대, 보수층과 중도층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큰 폭으로 이탈하는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1.9%p 내린 11.7%로, PK와 호남권, 경기·인천, 충청권, 60대 이상과, 20대, 보수층에서 이탈한 반면, 서울과 진보층에서는 결집했다. 정의당은 0.9%p 내린 3.8%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4당 체제가 형성되면, 서울과 충청권, 호남, 40대와 50대, 보수층과 진보층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기타 정당이 현재 정당 지지도 대비 2.5%p 내린 4.6%,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5.3%p 감소한 13.0%로 집계됐다.

개혁보수신당은 부산·경남·울산(30.8%), 改革 22.8%과 경기·인천(33.6%), 改革 20.8%, 대전·충청·세종(39.9%), 改革 18.0%), 40대(40.3%), 改革 16.0%)와 20대(45.3%), 改革 10.6%), 중도층(46.0%), 改革 18.9%에서는 각각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을 제치고 민주당에 이은 2위로 나타나았고, 60대 이상(與

36.1%, 改革 28.0%)과 보수층(與 38.9%, 改革 33.1%)에서는 새누리당에 이은 2위로 조사됐다.

민주당 33.9% > 새누리당 22.4% > 국민의당 13.6%, 새누리당 2주째 상승

또 <리얼미터>가 개혁보수신당을 빼고 기존 정당을 대상으로 한 12월 4주차 주중집계(26~28)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지난주 12월 3주차 대비 2.2%p 내린 33.9%로, 2주째 하락하며 4주째 만에 다시 35%대 밑으로 떨어졌다. 민주당은 PK(부산·경남·울산)와 경기·인천, 20대와 40대, 진보층과 보수층에서 하락한 가운데, 호남(43.2%), 國 26.5%에서는 국민의당을 18주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은 3.2%p 오른 22.4%로 2주째 상승, 11월 1주차(21.4%) 이후 8주째 만에 다시 20%대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충청권과 TK와 PK, 60대 이상과 20대, 보수층과 중도층 등에서 결집했다. 이와 같은 흐름은 비박계의 집단 탈당과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 추진 공식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

내년 1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당은 지난주와 비슷한

13.6%로, 충청권과 경기·인천, 30대, 진보층에서 결집한 반면, 대구·경북, 20대, 중도층에서는 이탈했다. 호남(國 26.5%, 민 43.2%)에서는 민주당에 18주째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수도권과 충청권, 40대와 20대,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이탈하며 1.5%p 내린 4.7%를 기록했다. 이어 기타 정당이 1.2%p 오른 7.1%,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0.8%p 감소한 18.3%로 집계됐다.

이번 주중집계는 26~28일 3일간 전국 유권자 1,52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9%), 스마트폰 앱(49%), 무선(17%)·유선(15%)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20.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또 개혁보수신당을 넣은 잡채 정당지지도 조사는 27~28일 2일간 전국 유권자 1,015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9%), 스마트폰 앱(49%), 무선(17%)·유선(15%)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19.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정환기자

2016 연말 시정발전유공시민 시상식



한규남 서산시의원 모범납세자 표창 받아 서산시의회 한규남 의원은 지난 28일 2016 연말 시정발전유공시민 시상식에서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았다.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선정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면허부 등록면허세와 균등분 주민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연 3건, 200만 원 이상을 기한내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한규남 시의원은 성실 납세와 도정 발전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충청남도지사 표창을 받은 것이다.

박범계 의원,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 특검 수사 의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사건이 포스코 권오준 회장 선임 과정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개인 정황이 있다며 특검 수사의 의뢰했다. 박범계 의원은 29일 열린 국정조사 특위 전체 회의에서 "포스코

에서 20여년 재직했던 정민우 전 대외협력실 팀장에게서 직접 제보를 받았다"며 "김기춘 비서실장이 다음 포스코 회장으로 권오준 회장을 찍었고 조원동 수석이 이에 권오준의 평판을 확인하여 아닌 것 같다고 보고했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은 권오준 회장을 강행하여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 이후 조원동 수석은 김응규 사장, 이영선 포스코 이사회 의장에게 실행을 시켰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최명주 사장,

구기수 청양군의회 총무위원장, 법무부장관상 수상

2016년도 범죄예방자원봉사유공 표창 수여식



청양군의회 구기수 의원이 지난 28일 공주지청에서 열린 '2016년도 범죄예방자원봉사유공 표창 수여식'에서 범죄예방자원봉사 유공으로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구 위원장은 2004년 범사방위원으로 위촉된 이래 지구 감사로서 활동하면서 투철한 봉사, 희생정신으로 조직의 발전과 활성화에 힘쓰는 한편 범죄예방 활동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어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앞으로도 활발한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구기수 총무위원장은 대한어머니회충남부회장, 청양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청양군다문화센터운영위원, 대한어머니회청양군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청양군 자원봉사자 회원, 가정폭력 및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 공주시지역연합회 범사방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청양=정성범기자

박병석 의원 '여객기내 난동' 처벌 강화법 발의

앞으로는 여객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박병석 의원은(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5선) 현재 여객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항공보안법'의 처벌수위를 높여 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기업인 2세가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사건을 비롯해 대기업 임원의 '다면사건' 등 항공기 내 난동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기내 난동에 대해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기내 난동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기 승객 전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항공기 내 범죄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측면에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보다 그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정복기자

공주 금강교, 공주대교 보수·보강 사업 위한 5억원 확보

정진석 의원, 금강교와 공주대교 보수·보강하는데 투입될 예정



정진석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은 국민안전처로부터 금강교와 공주대교 보수·보강 사업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런 정진석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금강교와 공주대교를 보수·보강하는데 투입될 예정이

부터 확보하였고, 교부 즉시 예산을 투입하여 2017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진석 의원은 "금강교와 공주대교는 공주시 전체 인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량으로 지역민들의 안전과 통행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보수·보강 공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 대해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송대운 의원, 죽동푸르지오아파트 주민에게 감사패 받아

대단위 개발이 이루어지는 죽동지구 정주조건 개선,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설립 크게 공헌

대전시의회 송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12월 28일



유성구 죽동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죽동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송 의원은 대단위 개발이 이루어지는 죽동지구의 정주조건 개선,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설립에 크게 공헌하였다"며 감사패 증정의 이유를 밝혔다. 송대운 의원은 "시의회 입성 직후인 2014년 7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죽동초등학교 신설을 백지화하려는 교육감을 상대로 지역의 특수성과 학생 안전을 이유로 죽동초등학교 설립의 당위성을 피력하였다'며 내년 3월 교교를 앞둔시기까지 신속사업비 확보, 임

시특화차량 마련 등 학교설립과 학생안전을 위해 지역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지역에서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죽동지구 주민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간선버스(117번) 노선 변경을 시에 제안하였으며 지난 9월 개선회에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했다. 김정환기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확보...컨트롤타워 신설

정부, 경제 사회의 근본적 변화에 선제적 대비

정부가 내년부터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경제 사회의 근본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4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 중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관련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정부는 컨트롤타워 신설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촉진한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체계적 대응 위한 컨트롤타워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기술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돼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촉발시키는 기술혁명이다.

정부는 경제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마련한다. 핵심기술개발, 시장기반 조성 및 산업구조 혁신, 인재양성 및 고용구조 변화 대응 등 분야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한다. 창조경제 성과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도록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혁신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한다.

◆4대 구조개혁 정부는 교육·노동 등 4대 개혁 가속화로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한다. 교육 분야의 경우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SW 교육 필수화 등 개

정 초·중등 교육과정을 시행한다.

노동 분야는 노동개혁 입법노력 강화, 산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유망분야 NCS개발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효율적 노동시장을 구축한다.

금융 분야는 신기술-금융서비스간 융합을 위한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마련, 기술금융대출 투자 확대 통해 모험자금을 육성한다.

공공 분야의 경우 정책금융 등 3대 분야 기능조정 방안 마련 및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촉진, 사업성 기금 여유재원으로 대체투자를 활성화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육아 등 단계별 지원을 확대한다.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거쳐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 예산안부터 단계적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를 전수조사해 세자녀 이상 가구 중심 다자녀 혜택을 두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를 검토한다.

결혼 인센티브 강화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서민·중산층 근로자 등에 대해 혼인세액공제 신설(1인당 50만원, 맞벌이 100만 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우대규리를 확대한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모성보호제도 이행 강화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및 어린이집 평가대상 확대, 공동 브랜드 사용 어린이집 관리 서비스업 지원을 강화한다. 이정복기자

박기영 의원, 법무부장관 표창

비행소년 선도보호 보호관찰 등 범죄예방활동에 진력

공주시의회 박기영 의원이 지난 28일 공주시청에서 법무부 범사방 위원회와 범죄피해자보호센터 회원, 유관기관 및 단체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 범사방위원회 위원인 공주시의회 박기영 의원이 송고한 인간애와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비행소년 선도보호와 보호관찰 및 갱생보호사업 지원 등 범죄예방활동에 진력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 표창장을 홍중희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시청장으로부터 전수받았다. 공주=정성범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산항 컨테이너물동량 '사상 최대치 경신'

서산시, 세계경기 저성장·해운·조선업 불황속에도 꾸준한 성장 11만TEU 초과 달성

서산 대산항. 2016년 컨테이너 물동량이 총체적인 경기침체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9년 연속 증가라는 놀라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 29일 기준으로 서산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대비 6% 증가한 110,862TEU를 기록하며 올해 목표치인 11만TEU를 초과,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8,388TEU에 불과했던 서산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9년간 약 132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극심한 해운·조선업 위기 속에서도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끌어 국제적 항만으로 손색이 없는 평가다.

그간 서산 대산항은 화물화물기업 및 충청권 글로벌 기업들의 수출입 활로 개척에 앞장서 고려해운, 차이나넬링, SITC 등의 선사를 중심으로 신규항로 개설, 물동량 유치 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세관, 검역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 미나 및 선사·화주 초청 워크숍 개최 서산 대산항 활성화 지원사업 ▲정책세 ▲경쟁력 향상 민간기업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서산 대산항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컨테이너화물 뿐만 아니라 벌크화물 유치 마케팅을 추진하고 항만 수용력 증대를 위한 서산 대산항 관리부두 및 컨테이너부두 등의 항만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관계기관과 국비 예산 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 대산항 물동량 증가 및 신규항로 개설 등 서산 대산항 활성화가 지역발전의 큰 기여하고 있다." 며 "앞으로 충청권 최초의 국제여객선 취항을 통해 서산 대산항이 물류와 여객이 공존하는 '환황해권 신 중심항만' 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17만 5천여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서산 대산항은 현재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를 오가는 폭넓은 컨테이너 정기항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롯데마트-아산시 Food 행복나눔 후원협약 체결 롯데마트 아산점(점장 민경연)은 지난 28일 아산시(시장 복기왕)를 방문해 「Food 행복나눔 후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롯데마트 아산점(점장 민경연)은 2017년 1월 1일부터 1년간 4,000만원 상당의 신선식품을 아산시초푸드뱅크(뱅크장 이봉석)에 전달하여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정기후원하기로 약속했다.



신창제지공업(주), 아산시 취약계층 하반기 후원품 전달 신창제지공업(주)(회장 김석규)은 지난 28일 아산시(시장 복기왕)에 후원품 가정용 화장지 22,500개와 라면 1,600개(총 8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후원처에서 생산한 물품을 지원하기로 2015년 12월에 아산시행복복지지원단과 체결한 후원협약에 실시됐다.

타임월 새해맞이 첫 세일 시작

캘러리아타임월드(대표이사 황용득)는 새해맞이 첫 세일을 2~22일까지 진행하고 신년맞이 행사인 이벤트와 더불어 해외 유명 일러스트의 예술 작품으로 탄생한 새로운 쇼핑백을 선보인다.

우선 새해 첫 세일에는 트레디셔널 브랜드 폴로 여성, 랍프로렌 칠드런, 폴로 랍프로렌 남성 30%, 헤지스레이디스, 헤지스 남성, 골프에서 30%, 타미힐피거 여성, 남성, 칠드런, 데님에서 30%, 라코스 테 우먼, 남성, 백에서 30% 세일이 진행되며, 빈폴ACC, 빈폴키즈, 빈폴골프, 빈폴에서 30% 세일이 진행된다.

또한 토리버치, 플라츠플리즈, 피에르 발망, 피에리, 피에리엔 브랜드 20%~30% 시즌오프와, SJS, 시스템, 시스템음모 20%~30%, 자라 2016년 가을/겨울 상품 최대 60%, GAP, GAP키즈 최대 50% 시즌오프 할인행사가 함께 열린다.

이와함께 여성의류 에고이스트, 트샵, 클럽모나코, 커밍스텝 등 유아동 브랜드 밍크큐, 블루독베이비, 리틀그라운드, 닥스키즈 등, 남성의류 짐스트리트뉴욕, 알레그리, 비이커, DKNY, 클럽모나코 등 30% 세일이 진행되며, 여성의류 온앤온, 시슬러, 보브, 지켓 등 남성의류 헨리코튼 골프의류 힐라골프, 엘로드, 블랙앤화이트 등,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아디다스, 아리나, 엘르수영복 등이 20% 세일에 참여했다.

송병배기자

(042)538-3030

철도공단 손실보상 업무에 내년부터 '지적기반 연결용지도' 활용

기존 CAD도면 한계 극복... 클릭 한번으로 토지정보·매수현황 등 확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LX(사장 김영표)와의 정부3.0 협업을 통해 구축한 '지적기반 연결용지도' 데이터베이스(DB)를 2017년부터 손실보상 업무에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철도건설사업 용지도면은 일반적으로 CAD로 작성됐으나, 도형만 있는 CAD도면으로는 공사에 편익되는 토지

의 지변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매수 현황 등을 파악하는 데에 불편 요한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지적과 도형·속성·좌표 등의 정보를 함께 가지고 있는 '지적기반 연결용지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업무에 적용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사업별 토지 정보

와 매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철도공단 김계용 시설본부장은 "지적기반 연결용지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업무가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될 것"이라며, "철도건설사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손실보상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칠갑산 휴양랜드 PAR3골프장 1년간 한시적 무료운영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칠갑산휴양랜드 PAR3골프장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설 홍보를 위해 2017년도 1년간 한시적으로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군은 칠갑산 휴양랜드 PAR3골프장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설 홍보를 위해 이용객 증가를 유도하고자 운영조례를 개정해 이 같이 결정했다.

현재, 칠갑산 휴양랜드는 시설운영에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운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에 사용·수익허가를 실시코자 입찰 공고 중에 있다.

지난 1차 공고 결과 유찰됨에 따라 내년 1월 5일까지 2차 입찰공고 중으로 유찰시 사용료 체감 한도액까지 입찰 공고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따라서 군이 직접 운영 시 1년간 PAR3 골프장은 무료운영이 가능하나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수익허가 낙찰 시에는 유료로 전환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무료 운영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지역의 새로운 생활체육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PAR3 골프장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골프채와 하프백은 무료로 대여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칠갑산 휴양랜드(940-2800)로 하면 된다.

청양=정상범기자

롯데백 대전점 새해 첫 Lovely 名作SALE

롯데백화점 대전점(점장 강재욱)은 새해를 맞아 2일부터 22일까지 21일간, 다양한 프로모션과 함께 2017년 첫 'Lovely 名作SALE'을 진행한다.

엘칸토, 맨디, 소다 등 구두 브랜드들과 실크로드, 마담포라, 부르다문 등 여성패션 브랜드들을 비롯해 남성패션, 핸드백, 스포츠, 아웃도어, 가정생활 등 각 브랜드별로 30~10% 할인판매를 진행하고, 빈폴, 폴로, 헤지스, 라코스, 타미힐피거 등 트레디셔널 브랜드에서는 30% 시즌OFF 행사를 진행한다.

2일부터 4일까지, 세일축하 특별 행사로, 식품, 패션잡화, 주방기기 상품군별로 다양한 인기상품으로 구성된 세트상품을 일별 선착순으로 특별한 가격에 한정판매하는 '럭키 스페셜 기프트' 행사를 진행한다.

2일에는 지하1층 식품관에서 올리타리아 오일세트와 인기 식자재세트를 각 1만원에 한정판매하고, 3일에는 1층 패션잡화매장에서 비비안 기모 타이즈세트를 1만원에, 장갑(2개), 머플러 세트를 3만원에

한정판매한다. 4일에는 지하1층 가정관에서 한국도자기 공기,대접 세트를 1만원에, 프라이팬, 식도, 팬방 등으로 구성된 두께 밀리 키친종합세트를 5만원에 한정판매한다.

또한, 새해 첫 세일 축하행사로 여성패션, 남성패션, 아웃도어 등 각 층별로 코트, 패딩, 다운점퍼, 다운사파리 등 인기 아이템을 선정해 최대 40~70%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신년 대박 상품전도 펼쳐진다. 대표상품으로 슈즈미즈 코트를 8만원에, 마인드브릿지 다운점퍼를 12만 9000원에, 블랙야크키즈 리츠다운패딩을 17만2000원에 판매한다.

9층 특별매장에서 '스포츠방한의류 특집' 행사가 진행되어, 휠라 다운점퍼를 15만8400원에, K-SWISS 야상패딩을 19만9000원에, 경량패딩을 11만8300원에 판매하고, '겨울부츠 굿입가전'에서는 엘칸토 앵클부츠를 7만9000원에, 맨디 톱부츠를 18만 9000원에 판매한다.

송병배기자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당진형 주민자치 뿌리 내리다”

제도적 기반 마련·상급기관평가서 두각



당진 신평면의 충남형 동네자치 최우수 마을 및 전국주민자치 우수사례 선정, 도내 최초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전 사전교육 실시, 최초 캐릭터 공무원 쪽이를 활약까지 이 모든 말들은 당진형 주민자치가 올 한 해 동안 걸어온 역사를 축약한 키워드다.

실질적 주민자치를 표방한 당진형 주민자치는 2015년 시행 초기만 해도 시민들의 공감대 부족과 관련 조례의 전면 재개정이라는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올해 시는 ‘당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 규정인 운영세칙안도 마련하면서 조례와 시행규칙, 운영세칙이라는 3박자를 갖추며 제도적 근간을 마련했다.

또한 도내 최초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촉하기 전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최초 캐릭터 공무원인 쪽이를 활용한 친숙하고 차별화된 SNS 홍보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주민제 인상에 따른 추가 세입을 주민자치 특화사업에 투입해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자치사업을 발굴·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더해져 지난 10월 열린 충남도 동네자치 한마당 행사에서는 신평면과 당진3동의 주민자치 사례가 각각 최우수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신평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충남도 대표로 전국주민자치 박람회에도 참가해 ‘조나단이랑 떠나는 토요일 캠프’ 등 자치위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따른 복지차량

온양3동 맞춤형 복지차량 전달



아산시(시장 북기왕)는 12월 28일 보건복지부 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맞춤형 복지차량(1대)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수요자의 여건에 따라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도내에서는 68개 읍면동에 기본형 29개, 권역형 14개 등 43개의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아산시 온양3동은 2016년 복지허브화를 주도하는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16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선정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평가에서 2016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9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지자체 선정은 2016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를 기초로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합동평가 지표 중

전달식에는 아산시 복지허브화 추진현황과 지역복지협의체 위원들의 사업 참여 소감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또한 복지 공무원의 안전지킴이로서 스마트 위치가 지원되어 비상상황 시 응급호출할 수 있는 기능을 시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지원된 맞춤형 복지차량은 내역을 내뽐지 않는 친환경 전기차량으로 환경보호에도 앞장서는 선도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아산시 허브화 지역에 2억2천만원이 지원되어 맞춤형 복지차량 9대(전기차 5대, 가솔린차량 4대)가 전달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4개 중 기초생활보장분야 지표는 15개이다.

또한 2015년 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 평가에서 군부 7위였던 청양군은 도내 2위를 달성해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바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우수한 평가 성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지진화산센터 및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설

기상청, 지진 대응 역량 강화와 핵심 인재 양성 위해...기구 및 인력 보강

공주시, 도로사업

장려상 수상

기상청(청장 고윤화)은 지진 대응 역량 강화와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하여 차장 직속으로 지진화산센터, 소속기관으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을 각각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한 4과(▲기상융합서비스과 ▲지진화산연구과 ▲교육기획과 ▲인재개발과) 3팀(▲예보분석팀 ▲미래수치기술팀 ▲지진정보기술팀)을 신설하고 15명의 인력을 보강한다.

대규모 지진·지진해일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도록 ‘지진화산센터’(구 지진화산관리관실) 산하에 지진화산연구과와 지진정보기

술팀을 신설하여 관측·경보 총괄 및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지진 전문인력 9명을 증원한다.

지진화산연구과는 지진발생환경 해석 분야 연구 업무를 전담한다. 지진정보기술팀은 긴급재난문자(CBS) 서비스 업무 및 지진 관측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업무를 전담한다.

‘기상기후인재개발원’(구 인력개발과) 산하에 교육기획과와 인재개발과를 신설하여 기상·기후 분야의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기상정책 입안 ▲기상서비스 ▲기술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전문가 양성의 기반을 다진다.

전담 교수요원 2명을 신규 확보하여 극한 기상현상의 발생 증가에 대비한 전문예보관 양성 등 핵심 분야 전문가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예보의 전문성 및 정확도를 높이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정비한다.

2016년 기록적인 폭염 등이상기후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예보분석팀을 신설하고 기상연구 강화를 위한 인력 1명을 증원한다.

기상융합서비스과(구 기상기술융합팀)의 부서장 직급을 4·5급→4급으로 격상하여 기상 분야와 산업·경제 등 분야 간 빅데이터(거

대자료) 융합서비스 지원 기능을 보강한다.

수치예보 분야 연구개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기상청 소속기관으로 ‘수치모델링센터’(구 수치모델연구부) 산하에 ‘미래수치기술팀’을 신설하고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한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진으로 인한 국민편안을 해소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며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기상청의 역할 증대가 요구되는 만큼 기상재해 대응역량 강화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다”고 밝혔다. 박용관기자

동부교육지원청, ‘을지연습’ 국민안전처 장관 기관표창

‘2016을지연습’ 평가 결과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은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 동안 실시한 ‘2016을지연습’ 평가 결과, 국민안전처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이번 을지연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

실있는 사전준비와 계획을 통하여 기관장 및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체 연습계획 및 홍

보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장 주재로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였고, 전광판, 현수막, 입간판, 배너,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으로 시민 안전의식을 제고하였으며, 전시직제 편성훈련, 학교재배치 훈련 등 실질적인 훈련을 강화했다.

특히, 교육지원청 직원(근무조), 지역권선원 자문장학협의회 중심 학교교장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을지연습 진행 상황 보고 및 참관을 실

시하여 최근 북한의 위협 및 을지연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켰고, 국가 안보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을지연습에 대한 호감을 상승시켰다.

동부교육지원청 이기자 교육장은 “이번 수상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연습에 임한 결과”라며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비상대비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확고한 안보의식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건양대 김형곤 교수, 미국 전쟁사 다룬 인문학서 출간

신간 ‘미국 남북전쟁’과 ‘미국 독립전쟁’



건양대학교(총장 김희수) 김형곤<사신> 인문융합교육학부 교수가 신간 ‘미국 남북전쟁’과 ‘미

국 독립전쟁’을 출간했다. ‘미국 남북전쟁’은 당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의 충돌, 노예제도에 대한 논쟁, 정치적 선동 등으로 꼽히는 남북전쟁의 배경부터 꼼꼼히 살펴본다. 이어 남북전쟁의 과정과 결과를 짚어보는 가운데 그 중심에 몸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링컨과 그의 리더십을 조망함으로써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미국 독립전쟁’은 ‘긴급 소집령’으로 구성된 아메리카 독립군이 세계를 호령하던 영국군을 물리치고 인류 최초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기

까지의 미국 독립전쟁을 조망함으로써 시대의 편견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과 그 역사적 의미를 짚어본다.

김형곤 교수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리더십을 분석한 ‘원칙의 힘’,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리더십을 분석한 ‘소통의 힘’, 조지 워싱턴의 리더십을 분석한 ‘정직의 힘’ 등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을 분석한 저서를 다수 출간해왔다. 또한 ‘나는 세렌디피티’와 ‘나를 깨우는 위대한 여행’, ‘영화로 읽는 서양의 역사’ 등 젊은 세대를 위한 자기계발서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문교양서를 펴내며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정복기자

공주시, 기업유치지원 및 창업지원 2년연속 전국 1위

대한상공회의소 2016년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부문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규제개혁과 기업유치 인센티브 확대 등 일자리 확충을 위한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하는 2016년 전국규제지도의 기업유치지원, 창업지원 분야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행정부 지방규제개혁 평가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4년부터 전국 지자체 228곳과 기업 8천6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하는 ‘전국규제지도’로 ‘경제활동친화

성’과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 부문으로 순위를 발표하는 것이다.

기업유치지원, 창업지원 분야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성과는 공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나태내는 것으로, 그동안 시가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하는 등 일자리 확충을 위한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올

해 40여개의 우량기업을 유치해 지방법인소득세가 123억여원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이는 오시덕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기업유치가 큰 몫을 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이번 조사에서 산업단지, 공공계약 부문 또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공장설립 등 4개 분야에서 S등급을 받아 전국 지자체 중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윤응수 기획담당관은 “앞으로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정성범기자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운영유공 충남지사 표창 수상

폐자원 기반시설 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

아산시시설관리공단(김운식)이 폐자원 기반시설 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충청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2016년 폐기물처리시설분야 전국평가 결과 실적우수 등 지역환경보전에서 두각을 나타낸 점이 인정을 받았다.

현재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생활자원처리장은 환경부 주관 전

국 176개 소각시설평가에서 3년 연속 가등급(최우수시설)로 선정된 바 있으며, 공단은 이외에도 폐기물 발생 Zero 실천,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 등을 적극 전개하고, 생활환경체험교실, 지구환경사진전 등 저탄소 친환경 생활실천분위기 확산에도 주력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이번 수상으로 공단은 지난해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실천 활동 경연대회 최우수상(환경부장관상) 수상에 이어 올해에만 여섯 번째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게 됐다.

공단관계자는 “앞으로도 소각시설의 최적화 운영과 지역 환경보전 활동으로 공기업을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장애인활동지원 최우수기관 선정

아산시각장애인연합회, 기관 표창 수상



(사)충청남도시각장애인연합회 아산시지회(지회장 김영동)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품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16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장애인지립생활센터 및 장애인 단체 등 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1~3급 장애

인에게 자립 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지원 등 보조서비스제공하는 사업이다.

김영동 지회장은 “앞으로도 아산시회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2016년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국기기술사업화진흥협회, 재취업 지원사업 수료식 개최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회장 김순식)는 29일 오후 12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중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울산시(시장 김기현)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정재훈)과 울산산학융합원(원장 양순용)이 주관하는 “2016년도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 수료식을 거행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울산 및 거

제지역에서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퇴직자의 재취업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울산지역은 지난 14일부터 현대중공업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거제지역은 16일부터 대우조선해양 및 삼성중공업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2주동안 ‘기술사업화전문가(기술경영사, 기술평가사) 양성 과정’으로 진행했다. 송병배기자

“해외브랜드 생활가전, 가격 저렴하나 AS 어려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 예방과 불편 해소 위한 업무 중점적 추진 계획

해외구매를 통한 가전제품 구입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디자인과 기능이 독특한 중소형 생활가전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건표)이 11월 24~30일까지 국내에서 판매중인 해외브랜드 중소형 생활가전 5종의 국내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4종의 해외구매 가격이 국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브랜드 중소형 생활가전 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임을 고려하여 면세한도(150달러, 미국은 200달러, 이하 미화 기준)를 기준으로 분리해 조사한 결과, 관·부가세 부과대상인 2개 제품 모두 해외구매가(해외판매가에서 배송대행료를 포함한 가격)가 국내판매가보다 각각 21.4%, 35.1%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면세한도 이내인 3개 제품 중 2개의 해외구매가가 국내판매가보다 각각 4.7%, 22.0% 저렴했고, 1개는 해외구매가가 국내에 비해 53.8%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동일한 제품이라도 해외구매 국가에 따라서 가격차가 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돼, 해외구매 시 국가별로 꼼꼼히 비교 후 결정하는 것이 경제적이었다.

해외브랜드 생활가전은 비교적 고가이므로 가격뿐만 아니라 국내 AS, 반쯤 가능 여부 등 거래조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리적이고 안전한 해외구매를 할 수 있다. 제품 구매 당시 예상치 못했던 AS 거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가격 비교 브랜드를 포함, 10개 브랜드의 해외구매 제품 국내 AS 정책을 조사한 결과, 10개 중 6개가 국내 AS를 제공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0개 중 4개 브랜드(네스프레소, WMF, 볼레루스토, 일렉트로룩스) 제품은 해외구매로 구입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AS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S 제품 브랜드의 제품이라도 정격전압, 주파수, 플러그 등 전기적 사양이 국내 기준(220V, 60Hz)과 다를 경우에는 수리가 어려울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구매 제품의 국내 AS를 지원하지 않는 다이슨, 드루기, 발뮤다, 스메그, 켄우드, 키친에이드 등 6개 브랜드는 국내에 유통되는 가전제품 및 수리용 부품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국내 전기용품 안전 기준에 맞춰 생산·유통되므로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의 국내 AS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구매 제품의 국내 AS 정책이나 입찰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리도록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가전제품 해외구매 시에는 배송비용, 관·부가세 등 제품가격을 구성하는 요소 뿐만 아니라 AS 등 가격 외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므로 제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비교 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상기 조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해외구매를 돕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 중인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crossborderkagok.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해외구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금산소방서, 유해화학

물질 누출사고 대응훈련

금산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지난 28일 금산종합운동장 앞 주차장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금산군 군북면 조정리 소재 ㈜텐테크놀로지 공장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이용 불산주입 작업 중 불산탱크와 연결된 주입구 결합 불량으로 약 200리터의 불산이 누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상황실, 선착대장(구조대장), 현장대응팀장 초동조치사항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표준대응절차 이행여부 ▲현장대원의 장비사용법 숙달정도 및 현장 안전 확보 여부 등이다.

금산=전정만기자



서천소방서, 화학사고 대비 '제독소방차' 신규 배치 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는 각종 유해화학물질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제독소방차를 신규 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예산경찰서 '블랙캡스(Black Caps)' 운영계획 예산군 내 교통사고 사상자 증가에 따른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생명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써 다가오는 새해부터 블랙캡스 감시단, 일명 '블랙캡스(Black Caps)'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양소방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특별교육 실시 송년 모임과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의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관서장 특별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천안서북서·보안협력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위문 천안서북경찰서(서장 김보상)는 29일 천안시 쌍용동 소재 쌍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천안서북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위원장 김성수)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 관내 130세대의 북한이탈주민에게 매트(거실 비어담)와 김세트 등 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공주경찰서, 연말연시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단체와 합동순찰 연말연시를 맞아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범죄 발생 억제 및 사전 차단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민생안정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닭·오리고기 안심하고 드세요”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 삼계탕 무료급식 나눔 행사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지부장 남기범)는 최근 시(조류인플루엔자)로 피해입은 양계농가를 돕기 위해 30일 농가주부모임(회장 박옥주) 회원과 농협여성복지담당자 등 40여명이 온양온천역 하부공간에서 300여명을 대상으로 삼계탕 무료급식 나눔 행사를 할 예정이다.

무료급식 나눔행사는 거동이 불편하고 외롭게 홀로 생활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을 위해 농협목우촌 삼계탕과 다과를 대접하고 노래공연으로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남기범 지부장은 "A에 감염된 축산물은 유통 자체가 안되며, SI 바이러스는 75°C 이상에서 5분간 가열 시 사멸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데 편한 불안감으로 소비가 감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시민들께서 닭 소비촉진에 많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밝혔다.

이산=리량주기자

2016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90곳 점검결과 발표

금강유역환경청, 환경법 위반업소 166곳에서 총 210건의 위반행위 적발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경용)은 '16년 한 해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90곳을 점검한 결과, 환경법 위반업소 166곳(위반율 42.6%)에서 총 21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환경법 위반업소 166곳 중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21건, 배출(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행위 9건,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이행 5건 등 57건은 자체조사 후 관할 검찰에 송치했으며,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6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25건, 배출(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25건 등 20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했다.

금강청은 지난 한 해 적발된 불법행위 210건을 환경매체별로 분석한 결과, ▲대기부문 87건(41%) ▲수질부문 69건(33%) ▲폐기물부문 50건(24%) 등이라고 설명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 미이행이 78건(3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반 업종별로는 식품제조업(34건)이 가장 많고 폐수·폐기물처리업(31건), 금속제품제조업(20건), 고무·플라스틱제조업(18건), 시멘트·비금속제조업(17건), 도축·육가공업(14건) 등의 순이다.

금강청은 내년에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획단속의 소재 발굴과 더불어 합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박봉관기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때 지문으로 본인 확인 가능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내년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신분증이 아닌 지문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신청할 때 신분증으로만 본인 확인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본인이 원할 경우 지문을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은 등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진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과정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도 마련됐다. 민원인은 현재처럼 인크를 사용해 지문을 등록할 수도 있고 스캐너를 활용할 수도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인크를 사용하는 방식과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방식을 선택 또는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 받을 때 본인이 신청한 경우 발급신청·발급·교부 등 진행단계별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친척 등이 타인을 사칭한 부정 발급, 제3자 수령에 의한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정부는 설명했다.

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을 피



2017 안전도시 위해 3가지 정책 추진

119항공구조, 고성능 화학소방차, 덕암·태평 119인전센터신축

대전소방본부(본부장 정병순)는 2017년 정유년 새해 안전도시 대전의 모습을 새롭게 바꿀 주요 계획 세 가지를 소개했다.

첫째 대전소방의 이름으로 독자적인 119항공구조 구급업무를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충남, 충북 항공대 헬기를 운항 횟수별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해 왔으나 독립적인 항공대를 운용할 예정이다.

둘째 유성구 관평동지역에 특수대응단 건물을 신축하고 테크노밸리, 송강지구 등 비교적 출동거리가 먼 이 지역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고가사다리차 1대를 이동배치하고, 대덕산업단지, 대화산업단지의 소방안전을 위해 고성능화학소방차 1대를 신규 구입해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셋째 노후된 덕암, 태평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하기 위해 신규 부지 매입 및 청사 신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청사 신축이

이영호기자

논산소방서, 과열방지 불연재 설치

농가주택 화목보일러 화재 제로화 위해...맞춤형 복지기구



면 연동내부에 그을음(타르)이 생성되며, 이러한 타르는 가연성 물질과 같은 성격을 나타내며 화기 및 연기가 배출되지 않아 순간적으로 불꽃과 접하게 되면 500°C ~ 700°C에서 발연화한 후 연소가 지속되어 화재의 주원인이 된다.

이에 논산소방서는 농가주택 15가구를 선정하고 화목보일러 연동 주변을 세라크올이라는 불연재료로 마감하여 화목보일러 과열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또한 겨울철 기간 동안 의용수방대 화목보일러 점검반을 편성하고, 화목보일러 취급기구를 방문해 보일러 주변 화재발생 위험물 보관 금지, 보일러 정기 점검 및 연동 연결부위 등 전기적 청소 실시 안내, 화목보일러 사용 교육 및 안전매뉴얼 배부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논산=김태성기자

겨울철 축사화재 예방은 전열 기구·전기시설 점검

예산소방서(서장 이일용)는 겨울철 축사 화재 예방 요령을 소개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안전체 자료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 전국에서 발생한 축사 화재는 864건으로 총 380억 5000만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발생 건수는 소 축사(우사)가 358건(41.4%)로 가장 높았으며, 피해 규모는 돼지 축사(우사)가 254억 669.9%로 가장 컸다.

원인별로는 46.2%(399건)가 전기 기구·오전으로 전기 시설 점검만으로도 화재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에는 보온을 위해 축사를 막아두거나 보온시설을 보강하는데, 이럴 경우 내부의 습도가 올라가 누전 위험을 높이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 확산의 원인이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축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전기 시설이나 배선 설비는 반드시 정부인증을 받은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보온등과 온풍기 등 전열 기구도 정해진 규격과 용량에 맞게 사용하고, 용량을 무시한 문어발식 배선 연결은 하지 않도록 한다.

전기 기구는 반드시 접지 공사를 실시해 누전에 대비하고 누전 차단기, 배선의 덮개와 연결 상태 등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미리 전문 업체의 수리를 받거나 바꿔

예산=양성업기자

“구직자 36%, 스펙 초월 채용? 부담감 증가”

스펙 초월 채용에서 보완 필요한 점 ‘원하는 인재 대한 명확한 가이드 제시’

보다 많은 인재에게 입사 기회를 주기 위해 학벌, 외국어점수, 자격증 등 스펙을 보지 않는 ‘열린 채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오히려 구직자 10명 중 4명은 부담이 증가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구직자 314명을 대상으로 ‘스펙 초월 채용’으로 인해 취업 부담감이 줄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35.7%가 ‘오히려 늘었다’라고 답해 ‘줄었다’(14.6%)라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변화 없다’라는 답변도 절반에 가까운 49.7%였다.

부담감이 없거나 늘었다는 구직자들(268명)은 취업 부담이 줄지 않은 이유로 ‘스펙 초월 채용을 제하지 못해서’(50.7%,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

았다. 다음으로 ‘어차피 스펙을 볼 것 같아서’(34.7%), ‘기업마다 원하는 능력이 달라서’(31.3%),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막연해서’(27.2%), ‘기존 스펙 외 특별한 경험이 추가로 필요해서’(25%), ‘뛰어난 경쟁자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22.4%), ‘시행하는 기업 및 채용 인원이 적어서’(16.4%) 등을 들었다.

그렇다면, 스펙 초월 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전체 구직자의 54.5%가 ‘긍정적이다’라고 밝혀 부정적이라는 의견(45.5%)보다 9%p 높았다.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실무에 필요한 역량에 집중할 수 있어서’(49.1%,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평가

하게 경쟁할 수 있어서’(39.2%), ‘개성을 어필할 수 있어서’(25.7%), ‘스펙 쌓기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18.7%),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17.5%) 등의 답변이 있었다.

반면, 스펙 초월 채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143명)들은 그 이유로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서’(61.5%,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계속해서 ‘실무와 상관 없는 역량을 쌓는 것 같아서’(51%), ‘결국 다른 준비해야 할 것이 늘어나서’(44.1%),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호해서’(30.1%) 등이 이어졌다.

이들은 스펙 초월 채용에서 보완이 필요한 점으로 ‘원하는 인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제시’(49%, 복수응답), ‘평가

기준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46.2%), ‘실무와 관련 있는 역량 위주로 체크’(44.8%), ‘해당 전형 출신에 대한 차별 없음 보장’(25.9%), ‘채용인원 및 시행 기업 증대’(18.9%) 등을 꼽았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30.9%는 스펙 초월 채용에 지원한 경험이 있었다. 해당 채용에 지원하며 실제로 평가에서 제외된다고 느낀 스펙으로는 ‘학벌’(24.7%, 복수응답), ‘학력’(21.6%), ‘학점’(20.6%), ‘연령’(17.5%), ‘봉사활동’(17.5%), ‘군필 여부’(16.5%), ‘특정 자격증 보유’(15.5%), ‘거주지역’(14.4%), ‘어학성적’(14.4%), ‘해외경험’(13.4%), ‘수상 경력’(13.4%), ‘졸업연도’(13.4%), ‘전공’(11.3%) 등의 순이었다. 이정복기자

세종시교육청, 새내기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

신규 지방공무원 45명과 가족, 친지, 선배 멘토공무원 등 150여명 참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29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신규 지방공무원 45명과 가족, 친지, 선배 멘토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내기 공무원이 된 자녀들에게 공무원증을 수여하는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서 부모님들은 공무원이 된 자녀들에게 공무원증을 수여하며 “첫 시직의 다짐을 잊지 말고,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젊은 열정과 패기로 함께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순 편지를 낭독한 신규임용자가 세종=이정복기자

기관평가 특별교부금 70억 원 확보

대전시교육청, 안전제고 시설과 교육환경개선 등 사용 예정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심봉호)은 교육부로부터 2016년 시·도교육청 평가 34억 9천만 원 및 재정평가 우수교육청 선정에 따른 34억 7천만 원 등 약 7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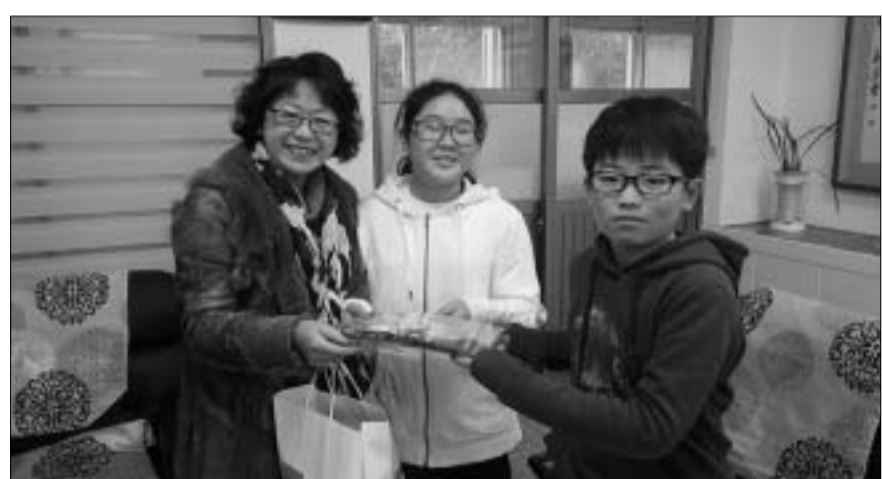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교육활동 전분야를 7개 평가영역으로 나눠 실시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재정평가는 재원 배분의 적절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2개 평가영역으로 실시한 결과 우수교육청에 선정되었으며, 특히 우수사례에서 ‘시지역 전국 1등’을 달성하여 대전교육재정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우수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는 학교현장의 요구를 잘 수렴하여 2017년 제1회 추경편성 시 안전제고 시설과 교육환경개선, 교육복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심봉호 교육감은 “시·도교육청 평가 2년 연속 우수교육청과 재정평가 우수교육청에 선정된 쾌거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시민의 결집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2017년에도 학생이 행복하고, 스승은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행복한 대전교육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창양 미당초, 전교생에게 방한모자 전달. 미당초등학교(교장 이관복) 건강마라톤 도전 학생들에게 보령미래톤클럽 최순애 부회장이 방한모자를 전교생에게 선물했다.



도산초, 건강증진 겨울놀이 체험학습

스케이팅과 눈썰매 체험학습 실시

도산초등학교(교장 유정하)는 12월 29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겨울놀이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1학년은 대전 오월드에서 먼저 눈썰매로 스릴을 즐기고, 재미있는 놀이기구를 타보았다. 사파리에서는 아메리칸 볼품, 코끼리, 기린 등을 보았는데 해설사의 설명으로 그동안 몰랐던 동물들의 습성도 알 수 있었다.

2~6학년은 대전 남산종합체육관 실내스케이팅장에 가서 신나게 스케이팅을 했다.

방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를 벗어나 다양한 체험을 기대하며 버스에 올랐는데 매서운 한파추위도 학생들의 쾌활함과 건강함을 이기지 못하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게 됐다. 김태선기자



세네갈 초등학교 학습지원 후원금 전달

봉우중학교, 심시일반 모아 세네갈 초등학교 학생 위해 학습교구 지원

대전봉우중학교는 29일 오전 교정실에서 전홍식 교장과 손희희 학생회장, 임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세네갈 초등학교 학습지원을 위한 후원금 60만1920원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세네갈의 투바 엔데이메레 1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교구로 지원된다. 투바 엔데이메레 1 초등학교는 과도한 학생 수와 장비 및 교재, 교구가 부족해

학업 성취율이 28% 정도이다.

대전봉우중학교는 2016년 2학기가 시작될 무렵 학생회 임원진과 대의원회의에서 세네갈 초등학교의 학습교구 지원을 결정하고 반장을 통해 전교생에게 세네갈 초등학교의 열악한 상황을 알렸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심시일반 기금을 조성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송병배기자

온양여자고등학교, Give 나눔축제 실시

재활용품 판매해 모은 수익금 104만원 무연고 유기아동 위해 기부

온양여자고등학교교장 윤여장은 23일 Give나눔축제를 열고 재활용품을 판매해 모은 수익금 104만원을 무연고 유기아동을 위해 기부했다. 학생회 주관으로 전교생이 참여하는 이 행사는 매년 어려운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따뜻함을 나누는 의미 있는 행사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 날 행사에서는 학생과 교원이 기부한 옷 250벌, 도서류 200권, 생활용품 150개, 문구와 인형 100개 등 다양한 재활용품 등이 판매되었고,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캘리그래피 써주기, 고민 상담 등 자신의 재능을 기부한 학생들도 있었다. 학생들 스스로 즐거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이었다.

윤여장 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의 기쁨과 성취감을 많이 얻은 것 같다. 앞으로도 우리학교는 다양한 교내외 활동과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을 통해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산=리량주기자

조달청 선정 우수기관 2개 부문 수상

천안교육지원청, 조달이용 우수기관 · 녹색제품 구매 우수기관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원목)은 조달청으로부터 2016년도 “조달이용 우수기관”과 “녹색구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감사패와 유공직원 표창장을 받았다. 감사패는 대전지방조달청장(김종권)이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실에서 직접 전달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2016년도 신선헌교 신축 및 기숙사 증축 등 주요공사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사자재 등을 구매했으며, 특히 신선헌교에 태양광 발전장치, LED조명기구 등은 녹색인증을 적용하여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녹색구매 우수기관은 천안교육지원청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5개 기관이 선정됐다. 천안=김정환기자



꿈동이들의 학교생활 첫걸음. 공주의대초등학교(교장 오병익)는 지난 28일 2017학년도 ‘꿈을 키워 미래를 여는 행복한 의당교육을 위한 신입생 학부모 연수를 실시했다. 신입생 학부모 연수는 ‘사랑(love)을 노래하다’라는 위의 슬로건으로 학교에서 직접 만든 학부모 연수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2016년도 주요 성과 30선 발표

충남도교육청 ‘참학력 신장’ · ‘진로진학교육 강화’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9일 올해 추진했던 사업 중 주요 성과 30선을 발표했다.

이를 주요정책 분야별로 살펴보면,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학교혁신과 관련해 ▲참학력 기반 조성 ▲진로·진학교육 지원을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충남형 자유학기제 운영 ▲학생성장발달 책임교육 ▲학생이 주도하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다문화 정책학교 85교 운영 ▲행복지원장학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선정했다.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배움이 즐거운 행복나눔학교 운영 ▲정책수행 학습연구년제 운영 ▲초등학교 한글교육 최소 50차 이상 확보 ▲천안고교 상황평준화 안정적 정착 ▲장애학생 체육·예술교육 운영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 학용품비, 학비 지원 ▲공립 유치원 방과 후과정 전담교사 100% 지원을 꼽았다.

더불어 성장하는 안전한 학교와 관련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씬(;)이 있는 행복놀이 ▲지발적 공동 연구·실천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진 대비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8교, 33억 원 지원 ▲상황별 체험중심 안전교육, 교육본질에 충실한 청정조식문화와 관련하여 ▲민간인 도민감사관 제 도입 ▲명절, 인사이동 시 선물 안 주고 안받기 정착 ▲한층 더 공정해진 일반직 공무원 인사 ▲시·도교육청 평가 도지역 ‘우수교육청’ 선정을 꼽았다.

지역과 협력하고 상상하는 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시장, 군수와 함께 하는 맞춤형 의견수렴회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조성 ▲학부모 지원 창구 일원화-학부모 지원센터 운영 ▲전년 대비 공문서 5.1% 감축 ▲농어민에게 교사와 함께하는 텃밭 정원 가꾸기 ▲충남 교육경비 확보액 전국 최고치 달성을 선정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올해 특히 ‘참학력 신장’과 ‘진로진학교육 강화’라는 두 개의 정책에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교실에서는 수업이 변화하고, 대학진입시 상담과 진로 설계에 대한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받았던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으므로 나타났다. 내포=전용식기자

동정

종무식



복기왕 아산시장 =30일 오후 3시 30분 시청 시민홀에서 열리는 2016년 종무식에 참석.

종무식



김홍장 당진시장 = 30일 오후 3시 30분 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6년 종무식에 참석

종무식



한상기 태안군수 = 30일 오전 10시 30분 군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6년 종무식에 참석.

종무식



이석화 청양군수 = 30일 오전 10시 청양문화관에서 열리는 2016년 종무식에 참석



신창면,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2차 연석회의 가져 아산시 신창면(면장 김경석)은 지난 28일, 신창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문제해결을 위해 2차연석회의를 가졌다.

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업체 공개모집

청양군 내년 1월 11일까지 신청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내년 1월 11일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전 품목 유통이 가능한 시설, 장비를 갖추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청양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3000개 이상의 식재료 전 품목을 관내 유·초·중·고 전체 16개 조리학교에 동일한 가격으로 일괄 공급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관리, 공급업체 관리, 클레임 처리, 친환경 농산물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식재료를 확대 공급하기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 조직화 등의 역할까지 수행한다.

위탁기간은 내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신청자격은 공고일(12월 28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학교급식 식재료 전 품목 유통이 가능한 시설, 장비를 갖추고, 집단급식소 식품관매입 신고를 필한 단체, 법인 등이다.

군은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청양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중에 위탁운영 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 농업지원과 로컬푸드팀(940-28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양=정성범기자

왜목마을 상징조형물 설치해 명소 만든다

당진시, 왜목마을 해안가 관광시설 기본계획 수립

당진시가 지역 대표 관광지인 왜목마을의 상징성을 높이기 위한 해안경관개선 작업에 나선다.

당진시는 올해 '왜목마을 해안가 관광시설 기본계획'을 집행해 일출·일몰 명소인 왜목마을에 적합한 해안경관 시설과 설치 위치에 대한 기본구상을 마쳤다.

시가 왜목마을의 상징성 부여 작업에 나선 이유는 포항 호미곶의 '상생의 손'이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구세주 그리스도상'처럼 어떤 상징 조형물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면 그 자체만으로 훌륭한 관광지인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기존에



설치돼 있는 왜목마을 내 시설물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가장 적합한

배치 위치를 검토했다.

특히 대표 상징 조형물로 지난 2000년 1월 세워졌던 조형물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을 재현하는 방안과 향후 개발이 추진되는 마리나항만사업과 연계한 상징조형물 설치하는 방안 등이 함께 제시됐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적합한 상징 조형물 설치를 확정된 뒤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당진시는 왜목마을과 장교항을 잇는 해안을 중심으로 지역특색을 살린 해오름길 조성사업도 2017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당진=최근수 기자

태안군 보건의료원 9억투입 새 단장

증축·개·보수 공사 마무리·5종 37대 의료장비 교체·보강



태안군이 보건의료원 증축 및 개·보수 공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장비와 시설로 군민 중심 서비스를 2017년부터 선보인다.

총 9억 1천만 원을 들여 본관 증축(188㎡) 및 개·보수(807㎡)를 실시하고 위 내시경 1대, 전해질 분석기 1대, 고압멸균기 1대, 치과 유니트 2대, 환자용 침대 32대 등 5종 37대

의 의료장비를 교체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태안군 민선6기 출범 후 제1기 현대화사업에 돌입, 전문 의료진 4명을 채용하고 신규 의료장비 5종 28대를 구입했으며, 진료시간 연장과 친절 안내 서비스 등을 함께 추진하는 등 주민 편의 증진에 앞장서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제2기 현대화사업에서는 본관을 개·보수하고 진료와 검사기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환자 동선을 효율화하는 등 기존 구조를 재배치해 내방객들의 편의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민간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65세 이상 노년인구가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 노년층의 종합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한 '어르신 건강센터' 건립을 추진 하고 있다.

그리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수시 실시해 친절한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닥터 헬기' 운용에 따른 응급실 기능 원활화를 위해 응급실 근무자들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춰 계획이다.

이밖에도, 내과 봉직의를 채용해 암 조기검진 및 치료에 앞장서는 등 건강검진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홍역, 쯤쯤가무시증 등 각종 감염병 유행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군민에게 신뢰받는 보건의료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상기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태안군 유일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의료원이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수호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원 현대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청양군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 선정작 공개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29일 군정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자 청양군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군정발전 아이디어에 공모 선정작을 공개했다.

군은 지난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57일 동안 군민들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43명으로부터 49건의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이에 군은 그 동안 업무팀장, 실·과 소관별 팀장의 1차 심사와 군정정책지원위원들의 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17건의 제안서를 제안 심사위원회 심의에 올렸다.

강준배 부군수 및 군 실과장 14명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28일 창의성, 경제성 및 효율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등의 심사 기준으로 3건의 장려작을 선정했다.

선정된 3건의 장려제안은 ▲청정청양 힐링 산림욕장 조성 ▲장곡사 벚꽃길 인도 및 주차장 개설 ▲칠갑호 스카이 워크(글래스 브릿지) 설치다.

'청정청양 힐링 산림욕장 조성'은 남양면 백월산 주변에 소나무 숲 힐링 목장 및 등산로를 조성한다는 제안으로 소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를 활용해 아토피 환자나 몸과 마음 치유하려는 관광객을 끌어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곡사 벚꽃길 인도 및 주차장 개설'은 장곡사 삼거리부터 주정교 삼거리까지 비포장도로를 개설하고 인도와 주차장을 확보해 관광객 접근성 및 편의성, 안전 등을 도모하는 제안이다.

'칠갑호 스카이 워크(글래스 브릿지) 설치'는 엑스트림을 즐길 수 있는 특화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칠갑호를 천장호 출렁다리와 장곡사를 잇는 3대 관광축으로 개발하는 제안이다.

이들 3개 선정작에는 각 70만원씩 시상금이 지급되며, 공모에 참여한 군민 5명에게도 각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군은 앞으로 채택된 제안에 대해 해당 부서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내내에도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군민들의 군정참여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청양=정성범기자

걸스Day 헬스Day 청소년 건강지킴이로 우뚝

당진시보건소, 시행 3년 차 학생들 만족도 높아

당진시보건소가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간호전사 건강지킴이를 중심으로 참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한 '걸스Day 헬스Day'가 합덕여고 학생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걸스Day 헬스Day'는 학사일정과 수업과정을 방해하지 않고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학생주도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전교생에게 전달하는 사업이다.

올해의 경우 '스트레스 관리'를

주제로 선정해 학우들에게 알맞은 한가위 스트레스예방 캠페인도 실시하고, 강사로부터 배운 요가를 친구들에게 직접 전파하는 등 다채로운 활동프로그램이 진행돼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각각 2.4%(44.1%→41.7%)와 2.3%(39.9%→37.6%)로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 시각장애인연합회 재활교육사업 발표회 가져

(사)충청남도시각장애인연합회 아산시지회(지회장 김영돈)는 지난 27일 시각장애인 및 봉사자 등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도 재활교육사업 발표회를 온양제일호텔에서 가졌다.

2016년도 아산시지회에서는 중도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육을

비롯하여 컴퓨터교육, 기공체조, 라인댄스, 불명, 쇼다운, 민요교실, 사물놀이, 우쿨렐레, 하모니카교실 등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꿈이 있어 아름다운 사람들 너와 나 우리 함께 해요'라는 주제로 프로그램 및 교

육에 참여한 시각장애인들과 지도 강사들을 격려하는 지리와 함께 사물놀이, 기공체조, 우쿨렐레, 가요, 하모니카, 라인댄스 등 1년 동안 같고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는 발표회도 실시했다.

행사에 참여한 회원은 "1년 동안 이루어졌던 활동사항과 프로그램

을 동영상으로 보고 듣고 있자니 너무 감동적이다. 앞으로도 열심히 교육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돈 지회장은 "1년동안 교육생들을 잘 이끌어주시는 강사들과 열심히 참여해 주신 교육생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아산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사랑의 후원물품 전달 아산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단장 이의순)은 12월 28일 사랑의 집 에덴(둔포면 소재)에서 사랑의 후원물품떡국떡 전달식을 가졌다.

올해 청양 빛낸 10대 성과 발표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청정 청양'의 슬로건과 함께 군민만족시대를 열기 위한 2016년 각종 군정현안을 앞차게 추진해 온 군정을 빛낸 10대 성과를 발표했다.

청양군이 선정한 올해 군정 10대 성과는 ▲청양사랑 인재육성장학기금 200억원 조성 목표 달성 ▲충남소방복합시설 유지 확보 ▲4년 연속 인구증가 달성 ▲전국 최고수준 부자농촌 실현 ▲공공입대주택 150세대 건립 유지 확보 ▲백제문화재박물관 개관 및 제1회 백제문화재현충제 개최 ▲활력 있는 스포츠 마케팅 ▲청양의 독립운동사 체계적 정리 및 발굴 ▲국민체육센터 군민 수영장 개장 ▲칠갑산 도립공원 면적 축소다.

청양군은 2016년을 민선6기 후반기가 시작되는 해이자 그동안 쌓아온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기 하는 기점으로 보고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청정 청양'의 슬로건과 함께 군민만족시대를 열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군정 10대 성과 가운데 민선5기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사업 조기 목표달성이 가장 주목된다.

군민 및 출향인 등 청양의 인재 발굴 육성에 대한 모든 열망이 모여 장학재단 출범 5년 만에 목표액 200억원을 조기 달성한 것이다.

또한 기관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착수한 결과 지난 6월 충청소방복합시설을 유치하는데 성공해 지역발전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 2013년부터 상승세를 탄 인구는 4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함과 동시에 공공입대주택 150세대 건립 유지 등 주거환경의 개선의 기반이 마련돼 오는 2020년 인구 32만5000명 달성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이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스포츠 마케팅도 올해 순조롭게 추진돼 42개의 전국 및 도단위 대회를 유치, 3만여 명의 방문객이 지역을 다녀가 165억원의 경제파급효과를 거두는 등 청양경제를 살리는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석화 군수는 "오직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지난 한해 빛나는 성과를 거뒀다"며 "넘버원 청양, 군민 만족시대를 함께 열기 위해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성범기자

19억 투입 실내 씨름 훈련장 준공

태안군, 씨름 강군(強郡) 이미지 굳히기 나서



태안군이 충청남도 유일의 실내 전용 씨름장을 완공하고 씨름 강군(強郡) 이미지 굳히기에 나선다.

태안군은 지난 28일 태안읍 평천리 태안종합운동장 인근에 씨름 전용 실내 씨름장을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태안읍 평천리에 건립된 전용씨름장은 900㎡(270여 평) 면적의 지상 2층 규모로 총 사업비 16억원이 투입돼 지난 3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1층에는 씨름장과 샤워실, 2층에는 숙소와 식당이 마련됐다.

군은 이번 전용씨름장 건립으로 선수단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어 선수 개개인의 경기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018년 태안군에서 개최되는 제70회 도민체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물론, 씨름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충남 유일의 실내 전용씨름장이 건립됨에 따라 앞으로 태안이 씨름종목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군 씨름단의 동계 전지훈련을 유지하는 등 지역발전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 씨름팀은 올해 치러진 제97회 전국체전에서 충청남도 대표로 출전해 금1, 동2개를 차지하며 종합 1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거두는 등 씨름 강군의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태안=김정환기자

특정

금요간담회의 주제



오세덕 공주시장은 30일 오전 8시 40분 상황실에서 금요간담회의를 주재하고, 오후 4시 문예회관 대공연장에 열리는 2016년 종무식에 참석.

2016 종무식



김동일 보령시장은 30일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16년 종무식 참석.

신년참배



이완섭 서산시장은 30일 오후 3시 30분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2016 특별한 종무식에 참석. 1월 1일 오전 9시 총평각, 총흔담, 반공위령탑 등에서 간부공무원과 함께 신년참배를 실시.

찾아가는 감성치유프로그램 봉사활동

금산군 진산면(면장 김준우)에서는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역 경로당 대상 '찾아가는 감성치유 프로그램'을 중부대학교 멀티케어사업단(단장 서정교)주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부대학교 보건행정학과를 비롯한 학생들로 구성된 '익앤드' 공연과 건강체조, 마을 주민들의 장기자랑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이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건강헬스케어' 봉사활동도 함께 병행돼 감성치유 프로그램과 더불어 심신을 위로하는 뜻 깊은 시간으로 다가가고 있다.

서정교 단장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흥겨움과 웃음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음악치료 등을 통한 '찾아가는 감성치유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 주민들에게 보다 큰 즐거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금산=전정만기자

보령시 정부3.0평가 '우수기관' 선정

보령시가 행정자치부의 2016 지자체 정부3.0평가에서 시 단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5000만원의 인센티브까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정부3.0 평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평가하는 정부혁신의 대표적 기관평가로 총 4개 평가항목(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8개 세부 지표(정부3.0 변화관리, 국민 맞춤형 서비스 추진,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현안해결, 일하는 방식 개선 등)로 평가하는 것이다.

시는 올해 행정자치부 북스캔 서비스를 통해 과거 소식지와 예산·결산서, 시보 등의 행정자료를 홈페이지 E-book으로 공개해 투명한 정부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열린 충청남도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열린 행정정보 시민과 함께 보령을 추억하다'란 과제로 도내 1위에 선정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밖에도 개발행위허가 및 지적공부 정리 원스톱처리, 시민과 함께하는 생명사랑·자살예방 3Go사업도 우수 시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첫 전국 우수기관 선정으로 정부 3.0 추진 의지와 행정혁신 및 대시민 서비스 노력의 공로를 인정받게 됐다"며, "시는 앞으로도 정부3.0 가치를 극대화한 수요자 입장의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개방·공유·소통·협력력을 주도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명품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서산시보건소 의료서비스 돌보여

청소년 비만예방 영양교육·치매 가족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서산시보건소가 지난 2월 청사를 이전하고 돌보이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는 평이다.

시 보건소는 정신보건센터, 건강증진센터, 조리실습실 등을 설치하고 요리조리 COOK 실버남성 요리교실, 청소년 비만예방 영양교육, 치매 가족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예방 중심의 평생치아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 중인 구강보건센터에서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질환 사전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조기검진 및 치료 등을 실시했다.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신설해 시민의 면역력 향상에 기여했고 A형간염 검사와 취약계층 골밀도 무료 검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보령시, 대해로 확포장제막·코아루~한내로 간 도로 준공식

도시균형 발전·시민생활 활력소 기대

보령시는 지난 28일 오후 대해로 확포장공사 완료에 따른 제막식과 코아루 아파트~한내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준공식을 가졌다.

보령시 내항동부터 신흥동 흑포 3거리까지 길이 5.86km, 폭 35m, 6차로로 추진한 대해로 확포장공사는 사업비 421억여 원을 들여 지난 2006년부터 추진, 이번에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이번 대해로 확포장으로 여름 휴가철 대천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정체 해소와 선형 개량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률을 대폭 낮출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코아루 아파트부터 한내로간 도시계획도로는 길이 325m, 폭 20m로 지난 2011년부터 43억 원을 들여 추진했으며, 보상이 완료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해 이번에 준공했다.

코아루~한내로 간 도시계획도로는 아파트 신축, 대형마트 입점, 학교 방문 차량 등으로 교통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불구하고 연계성과 우회기능이 없어 교통 체증이 심했던 지역으로 이번 준공으로 도심 간선도로망 연결로 접근성을 확보, 교통 순환기능을 갖추게 됐다.

보령=김태선기자

공주시, 올해 시정 빛낸 10대 성과 발표

관광도시 재도약 발판 마련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평생학습도시 선정, 기업유치지원 및 창업지원 등을 한해 시정을 빛낸 10대 성과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공주시의 최고 시정 성과로는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이 꼽혔다. 이는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으로 백제문화제와 석장리 구석기 축제의 성공 개최와 더불어 공주시가 관광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과 도시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10대 성과에는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및 백제문화제·석장리 구석기 축제 성공 개최 ▲제2 금강교 설계비 확보로 건설 가시화 ▲황새바위~사대부고 까지 도로 개선 확장공사 착공 ▲주미산 자연휴양림, 농업회관, 효심공원 준공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시민대학 성료 ▲우량기업유치 목표 111% 초과 달성 ▲농산물 해외 수출 및 일반화우 명품화 브랜드 사업 출범 등을 한해 역할을 두고 추진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또한 ▲오지마을 행복택시 운영



금산 목조건축협동조합(이사장 장호)에서는 28일 제원면 저곡리(이장 고선환)에서 주택 보수 수리 사업을 실시했다. 목조건축협동조합은 금산군에서 운영하는 행복나무 목조건축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기술을 재능기부를 통해 주택 보수 봉사를 하고 있다. 장호 이사장은 앞으로도 많은 주택 보수 및 봉사활동으로 금산군 저소득층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전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소득층 입원환자에 간병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과 경로당을 방문해 혈압·혈당 등 기초검사를 실시하는 우리마을 주치의제를 확대해 취약계층의 수혜기회를 늘렸다.

해충방제를 위한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발생처에도 힘을 쏟았으며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으로 완전한 식품환경 조성에도 노력했다.

경찰서, 소방서, 군 부대 등 유관기관과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의훈련을 실시해 충남도 평가결과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뽑히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보건소 1일 평균 이용자수는 약 500명으로 지난해 대비 26.4%, 진료실적은 1일 평균 129명 정도로 지난해 대비 약 53%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앙부처 및 충남도로부터 방문건강 관리사업 우수기관, 자살예방 관리사업 우수기관, 한의약간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내년에도 다양한 보건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만기자

2017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민선 6기 후반기에 들어섬에 따라 시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일 잘하는 시정 구현을 위해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2017년 1월 1자로 단행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그동안 주요요약 및 정책 사업을 담당해 오던 한시킴구유 성장전략사업단이 기간 만료로 폐지되고, 올해의 관광도시 준비, 세계유산준비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위해 미래도시사업단이 신설됨에 따라 업무 재편 등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승진인사는 공로연수 등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해서 직책 간 균형, 조직 내 리더십, 업무능력, 시정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5급 1명(행정직 2, 농업직 1, 토목직 1, 건축직 1)을 승진 의결했으며, 6급은 12명, 7급은 7명, 8급은 2명을 각각 승진 임용했다.

또한 전보 인사는 조직의 활력과 시민에게 한층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근속자, 인사고충상담자, 부서장인사제청자 등을 가능한 수용했으며, 개인의 역량과 적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데 주안점을 뒀 총 207명을 전보 인사했다.

공주시 인사담당관실 인사팀 이준영 담당은 "이번 정기인사는 조직개편을 고려해 일 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2017년 시정화두인 금성육진(金聲玉振)에 맞는 인사를 단행했다"며, "앞으로도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주=정성범기자

우리/동네

금산군립공도서관 자원활동가 모집

한 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

금산군립도서관에서는 한 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서관 운영에 도움을 줄 자원활동가를 모집한다. 금산인삼고을도서관, 금산지역의도서관, 추부도서관, 진산도서관에서 재능을 발휘 기부하고 싶은 사람, 도서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각 도서관에서 자원활동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자원활동가의 활동 분야는 일반적으로 도서정리, 파손도서 보수,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진행 또는 도우미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활동에 대한 혜택으로는 도서대출 2권(일반회원 10권) 증대, 한 달에 한 번 만남, 한 해에 한 번 문화탐방 등이 있다.

도서관별로 자원활동가들이 하고 있는 대표적 구체적 활동 예로 인삼고을도서관의 구입도서 장서인 짝기, 청구번호, 등록번호 바코드 붙이기 등, 지역의도서관 책축제 진행시 체류버스 운영, 하룻밤자기 진행 등, 추부도서관의 하룻밤자기 진행시 놀이 및 딱지 만들기 제공 등, 진산도서관 동지 행사로 책 읽어주기, 체험형 동화구연 체험 진행, 팝죽 풀이기 등을 자원활동가들이 맡아 진행해 오고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자원활동가 활동은 도서관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엄마 같은 중요한 역할"이라며 "많은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산=전정만기자



평생교육기관·단체·동아리 관계자 워크숍

공주시 향후 발전방향 논의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지난 27일 공주신림휴양마을에서 공주시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2016년 공주시 평생교육 기관·단체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관내 30개 평생교육·기관 단체 및 학습동아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이번 워크숍은 공주시 평생학습 성과발표회 평가회와 평생학습 우수사례로 지역공동체 '노랑진대학교' 이두영 소장의 특강, 목재문화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17일 고마에서 '쉬어가는 곳, 만남이 있는 곳, 학습을 나누는 곳'이라는 주제로 고마에서 열렸던 '2016 공주시 평생학습 성과발표회'에 대한 여러 의견이 오갔다.

이들은 공주시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이와 같은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돼야 한다는 뜻을 함께하며 행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평생학습 성과발표회는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40여개 기관·단체와 동아리가 참여했으며, 900여명의 시민이 행사장을 방문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가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기적인 행사준비의 필요성, 전시와 체험 내용, 동선 등을 고려한 행사장 부스 배치, 홍보 부족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공주시 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 이지영 담당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공주시 평생교육 기관 상호교류, 학습동아리 정보나눔,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등 공주시 평생학습이 한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됐다"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공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교육부로부터 2016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으며 제2회 동아시아 평생교육국제포럼 개최, 평생학습 성과발표회 개최 등 평생교육 발전의 중요한 한 해를 보냈다.

공주=정성범기자

자린고비 살림 국비 24억 확보

서산시, 고효율 LED 등기구 교체 등 에너지절약 추진

서산시가 올해 다양한 청사 에너지절약을 추진해 국비 24억여원을 확보했다.

서산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29%의 절감율을 달성해 국비 24억여원을 받게 됐고 29일 밝혔다. 시는 공공청사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구축, 태양광 발전설비 운영, 제2경사 평생교육센터

교육용전기 전환 등을 추진했다.

또 냉난방기 실내 적정온도 유지, 실내조명등 고효율 LED 등기구 100% 교체, 부서별 에너지 지킴이 활동 강화 등으로 579,323kWh의 전력억 9,400만여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실

서산=김정만기자

*문의 ▶ KBS 470-7320 ▶ MBC 220-2348-9 ▶ TJB 281-1101 ▶ 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7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Time, Program Name.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lifestyle programs.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7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Time, Program Name.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lifestyle programs.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7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Time, Program Name.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lifestyle programs.

TV 하이라이트

▲ 언제나 봄날 (MBC 오전 7시50분)



해자(오미연)는 가족들을 쫓아내고, 면식(선우재덕)과 가족들은 짐집방에서 지내게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면식이 정감은 면식네 가족들이 살 집을 마련 해주지만 면식은 그 집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 한편, 윤호(권현상)는 후계자 자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 저 하늘에 태양이 (KBS 오전 9시00분)

말순(윤복인)은 일말의 기대감을 안고 친부를 묻는 인경(윤아)에게 승준(이민성)을 생각하라며 다

케이블 영화

▲ 암살 (1일 OCN 오후 7시00분)

<암살>은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의열단의 활동 기록을 모티브로 하여 가상의 인물들이 펼쳐나가는 허구의 암살 사건을 그려냈다. 1933년 조국이 사라진 시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 측에 노출되지 않는 세 명을 암살작전에 지목한다. 한국 독립군 거점수 안옥은, 신흥무관학교 출신 속사포, 폭탄 전문가 황덕삼! 김구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임시정부 경무국 대장 염석진은 이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 암살단의 타깃은 조선주둔군 사령관 카와구치 마모부와 친일파 강인국. 한편, 누군가에게 거역의 의의를 받은 청부 살인업자 하와이 피스 톨이 암살단의 뒤를 쫓는 데... 친일파 암살작전을 둘러싼 이들의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이 펼쳐진다!



그치고, 인경은 정호(이민우)에게 향하는 마음을 누르려 애쓴다. 한편, 태준(이재용)을 찾아간 수지(유지연)는 인경이 정호와 헤어진 이유를 알게 되고, 정호는 표정시비로 인해 인경이 여우주연상 후보에서 제외될 지도 모른단 소식을 접하는데...

▲ 월계수양복점 신사들 (31일, KBS 오후 7시55분)



동진의 수트를 만들며 떠날 준비를 하는 연실. 영은과 삼도의 관계를 의심하는 선녀의 의심은 커져만 간다. 한편, 은숙은 태양과 닮고 들어온 효원에게 연애의 기술을 가르치는데...

▲ 백투더비기닝 (31일 채널OGV 오후 10시00분)

뒤바뀐 어제, 완벽해진 현재. 미래를 새로 쓰는 시간여행, 과거를 재구성하라! MIT 공대 입학의 꿈꾸는 과학도 데이비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비디오 카메라를 확인하다가 자신의 7살 생일 파티 영상에 찍힌 현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데이비드는 친구들과 아버지의 실실이었던 지하실에서 시간조정장치 설계도를 찾아내고 슬픈 실험 끝에 기계를 완성한다. 그들은 찌질한 현재를 탈출하기 위해 자신들의 과거를 바꾸기 위한 시간여행을 시작한다. 복권당첨, 왕따 탈출, 시험 다시 보기, 수업시간 중 토크나와 락스타일에 가며 현재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욱 완벽해진다. 그러나 소박했던 시간여행은 횡수를 더해갈수록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자신들의 과거를 재구성하는 동안 세상의 미래 역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청양군 체육회 '체육인의 밤 송년행사' 개최



청양군 체육회(회장 이석화)는 대한 협의를 가졌고, 2부는 화합을 다지는 친목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체육발전 유공으로 정상호, 김영진, 김경중, 김평수 체육회 이사 ▲스포츠 마케팅 유공으로 윤주남(케이트볼), 김완정(북

성), 박민진(족구), 이상화(체육회) 씨가 공로패를 받았다. 도민체육에서 금메달을 딴 ▲최성렬·한이숙(육상), 북상준(복싱), 서형준(역도) 학생은 군수 표창패를, ▲이관학(배구), 유현택(복싱), 장지훈·이장원(체육회)씨는 군의회 의장 감사패를 받았다. 청양군은 올해 4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한 출범해 체육 활성화와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개최 42회, 서울국제마라톤 대회에 국내 최고기록(2시간55분13초)으로 우승한 세계적 마라톤러 예부페(오주환)와 재계약, 여성축구단 3년 연속 도지사기 우승패거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청양=정성범기자

지역봉사단체, 어르신을 위한 연말예술공연 개최



연말을 맞아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 위로해주는 연말 예술공연 행사가 지난 26일, 지역 봉사단체 한국치매예방운동아산지부 대표 정용순)와 좋은이웃(회장 김소당) 공동 주관으로 온양요양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지역가수 흥단비

씨가 사회를 맡아 난타와 미술, 라인댄스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되었는데 특히 사회자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옛 노래를 매들리로 열창하면서 부모님 대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다정하게 손을 잡아 주면서 행사관람자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요즘 연말이 되었으나 어수선한 시국으로 인해 봉사단체의 활동이 뜸 해져 더욱 외로움을 느꼈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번 공연이 많은 위로와 위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봉사단체의 활발한 봉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요청사항까지의 의견이었다. 아산=리량주기자



당진시 금융기관장협의회 후원금 전달 당진시 금융기관장협의회(회장 최석동)이 하 당금회는 지난 28일 충남도계 및 당진시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에 승소를 기원하며 200만원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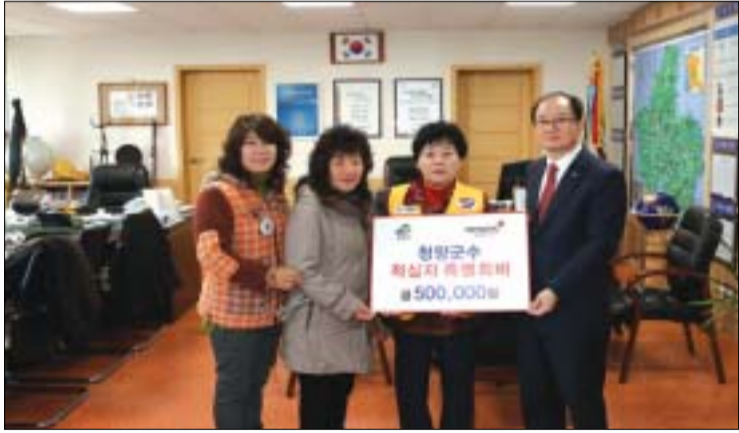
우송정보대학 글로벌시용음악과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즌2>' 완료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전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최하는 '2016년 문화가 있는 날 전문대학 <청춘마이크 시즌2>'에 공모하여 총 69개 팀에 선정되었다.



천안시청공노조 바자회 수익금 천안시복지재단에 전액기부 29일 2016사랑나눔바자회 수익금 전액(9,111,750원)을 천안시복지재단에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 13일 노·사가 함께하는 사랑나눔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기부이다.



공주시 옥룡동 해피뱅크, 어려운 학생에 장학금 전달 공주시 옥룡동 해피뱅크(동장 최정규, 통장협의회장 방성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이 우수한 중·고생 10명에게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청양군, 대한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29일 대한적십자봉사회 청양지구협의회(회장 김명옥)에 긴급재해 구호활동과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구호 활동에 쓰이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201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50만원을 전달했다.



LX공사 대전충남본부, 서부경찰서 100만원 물품 전달 LX한국토목공사(대전지점) 대전충남지역본부(부장 김기승)는 29일 연말을 맞아 대전서부경찰서를 찾아 삼겹살과 라면 등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배재대 한국어교육원,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과 대학 관계자 참석 춘천 기업탐방 및 문화체험활동 펼쳐

배재대학교 한국어교육원장 박석준 한국어문학과 교수가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강원도 춘천에서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과 대학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산업단지 기업탐방과 문화체험활동을 다녀왔다.

이 행사는 해외 바이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을 대상으로 춘천 바이오산업현황을 소개하고 바이오산업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향후 해외진출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행사로 마련됐다.

학생들은 첨단산업인 바이오 특화산업단지 시찰을 시작으로 바이오산업진흥원 현황을 둘러보고 연구, 생산설비 등을 견학하며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전망 등에 대한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아울러 호반의 도시 춘천의 대



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소양강 스카이워크 체험과 눈썰매 타기, 남이섬 관광 등을 통해 학업에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인도출신 유학생 스나다(22세)씨는 "산업단지 탐방 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표 음식인 막국수와 닭

갈비를 먹으면서 동료, 사제지간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다"며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모처럼 즐거운 재미와 휴식시간을 만끽했다"며 즐거워했다.

같은 날인 27일, 배재대 한국어교육원 정규과정 외국인 유학생과 교사 120명은 한국문화체험

활동으로 대전 서구 남부소방서 내 119시민체험센터를 찾아 소방 안전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은 화재 등의 응급상황에 대한 위기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질적인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은 3시간 동안 소화기 사용법 익히기, 화재대피훈련 등의 소방 안전체험과 심폐소생술 교육, 완강기 탈출체험 등의 위기탈출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 중 경계 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올바른 행동요령을 숙지하였다.

한편, 배재대 한국어교육원은 2000년부터 외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농촌체험, 지역역사탐방체험 등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한밭대 노황우 교수 대전광역시 표창 수상



한밭대학교(총장 송희영) 시각디자인학과 노황우<사진> 교수가 28

일 대전광역시 표창을 수상했다. 노황우 교수는 올해 4월 대전광역시 홍보매체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후 참여기업 선정과 홍보의 공익적 기능 활성화,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대전광역시 표창을 수상했다.

노황우 교수와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은 대전시가 올해부터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해 실시하는 기업 홍보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13개 업체의 광고를 제작했으며 그 결과를 대전시청 대형 홍보판 및 대전 지하철역 광고판 76개소에 설치했다.

또한, 노황우 교수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광고나 홍보를 못하는 소상공인들과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디자인재능기부에 학생들과 함께 즐겁게 참여했으며 이번 수상은 한밭대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이 그동안 실시한 지역봉사활동의 공로가 인정된 것을 대표로 받은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인사

■ 대전시

- ◇국장급(3급)
 -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최시복
 -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과학경제국장 유재종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문화체육관광국장 직무대리 이화섭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환경복지국장 이동한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 공주시

- ◇5급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태 ▲감사담당관 김병렬 ▲시민봉사과장 주진영 ▲회계과장 홍기석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허가과장 이창호(승진의결) ▲교통과장 황인관(승진의결) ▲장조도시과장 이연철(승진의결) ▲정책사업과장 심규덕

■ 한국철도시설공단

- ◇영남본부장 ▲김효식
- ◇기획재무본부 미래사업기획처장 ▲성영석 ◇기획재무본부 법무처장 ▲홍성욱

■ 한국조폐공사

- ◇관리직 임용
- ▲홍보협력실장 강현철

※ 대전시, 공주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사 본보 홈페이지 참조.



공주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 전달

니눔과상생으로 연말연시 맞아...사회복지시설 방문

공주대학교(총장 직무대리 김희수)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28일 김희수 총장직무대리를 비롯한 보직교수, 관계자 등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날 김희수 총장직무대리는 우리복지원(공주시 탄천면 소재)을

방문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장애우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자립을 목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공주 행복의 집(공주시 탄천면 소재)을 방문해 각각 교직원들의 훈훈한 정을 담은 성금을 전달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음봉면, 목욕봉사 등 후원 이어져

사랑의 목욕봉사서비스 · 어려운 이웃에 라면 전달 등

금호리조트(주) 아산 스파서비스가 지난 28일, 음봉면 산동5리 삼일원 양아파트 어르신 21명을 모시고 행복복커움 추진단(단장 이강수)과 함께 사랑의 목욕봉사서비스를 실시했다.

아산 스파서비스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사랑의 목욕봉사를 후원해왔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해 목욕서비스와 중식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날 음봉면 월랑3리 포스코3차 아파트에 위치한 삼성태권도학원 원생들이 1인당 라면 한 개

씩 모아 음봉면 행복키움 추진단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 달라며 라면 4박스 전달했다.

이정희 음봉면장은 "오늘 아산 스파서비스와 삼성태권도학원에서 음봉면을 위해 후원을 해주셨다. 삼성태권도학원의 경우는 올해 처음 라면을 후원을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후원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스파서비스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목욕봉사를 해오고 있다. 이 두 곳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금산군, 47개 사업 60억원...1월 접수 2017 농업기술 보급 공모사업 접수



금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29일 농업인 학습단체 임원 및 대표 등 50여명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농촌지도사업 성과 및 내년도 농업기술보급 사업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지난 19일 제2기 균형발전 3능 혁신FTA대응 경쟁력 제고 사업 성과에 대한 1차 1차 특산물 성과발표 및 토론회에서 농업지원사업에 건의 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 따라 농축산물의 소비위축

으로 가격하락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올 한해 금산군 농촌지도사업 10대 성과 보고와 2017년 금산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팜 등 생산시설의 첨단화 및 현대화 ▲6차산업의 유통구조 다변화 ▲고품질 농작물 생산기반 조성 ▲기능인 정착 성공 유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 GAP 인증 확대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작목 육성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금산=전정만기자



홍성군 결성면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쌀과 김 나눔 행사 지난 28일 결성면 새마을부녀회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쌀 80포(800kg)와 김 35상자를 기부했다.



2016 충남정신운동 청양군협의회 연말총회 개최 충남정신운동 청양군협의회(회장 정재권)는 29일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충남정신운동 청양군협의회 연말총회를 개최했다.

■ 부고 ▲ 서흥원(대전광역시교육청 공보관) 모친상, 이종례씨 별세 = 28일(목) 오전 9시, 평화원 장례식장(042-531-4444) 발인: 31일(토) 오전 7시 30분 장지: 공주시우성면이천리 선영, 서흥원(010-9046-7777)

기고

국고보조금 더 이상 '눈먼 돈' 아니다



유문형
조달청 시설총괄과장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국고보조사업 중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공사는 보조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계약과 설계검토 등을 조달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던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실질 그동안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라고들 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온 측면이 있었다. 심지어 공공 행사를 맡은 대형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하거나, 허위로 거래금액을 청구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허위 대금과 공사대금을 부풀리기가 성행해왔다.

왜 국고보조사업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을까?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나 민간 등 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다. 따라서 보조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부담금과 보조금으로 사업예산이 구분되고, 보조금은 남의 돈처럼 여겨질 수 있다.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조금 집행률 최소화하여 국고로 반납하려는 생각을 가진 보조사업자는 드물 것이다.

그럼 어떻게 개선하여야 할까? 공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능한 회계담당 또는 총무가 필요

한 것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관리자가 필요하다.

그동안 각 보조금 주무 부처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집행 내역을 정산하는 등 국고보조금 예산의 관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하지만 연간 약 60조 원 규모, 예산사업 단위로만 2천 개가 넘는 사업들의 추진과정을 소수의 중앙부처 인력이 세세하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시설공사의 경우 기획·설계·계약·시공 등 단계별로 진행되어 사업 추진 과정이 복잡하고, 목적물 완성에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이처럼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쓰이는 데는 운영 방식에 허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과 편법이 끼어들 틈새를 없애기 위해 시설공사의 경우, 조달청이 설계·계약·시공 등의 과정에 걸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국고보조금 또한 국가예산의 일

부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우리 모두의 공금이다. 먼저 보조사업자가 이 부분을 인지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만큼 국고보조금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 추가로 조달청, 보조금 주무부처, 지방자치단체 등도 힘을 합쳐 국고보조금 집행 관리에 힘을 쏟다면 국고보조금이 내 돈처럼 알뜰하게 쓰이게 될 것이다.

조달청은 연간 약 30조원 규모의 공사계약 및 공사발주 지원사업(공사관리, 설계검토)을 집행하는 공사발주 전문기관이다.

2016년 약 1조 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원가 검토를 통해 약 3800억 원의 공사비 예산을 절감하였다. 또한 약 4조 5000억 원 규모의 설계검토를 수행하여 약 23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약 1만 5000건의 과다설계 및 설계 오류 사항을 개선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달청의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 관리자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기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혁신 '읍면동 복지허브화'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할을 충실히 해도 그 사이를 연결하는 전달체계가 제 구실을 못하면 복지생태계는 원활히 작동할 수 없다.

전달체계가 취약해서 제 역할을 못하면 복지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 현상이 일어난다.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고 자원이 풍부하더라도 전달체계가 제 구실을 잘 못하면 정작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는 서비스가 적시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원과 서비스가 필요로 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전달되거나 필요한 양 이상으로 중복해서 전달될 수도 있다. 모두 비효율적인 복지생태계의 전형적인 예이다.

최근 우리나라 복지생태계의 가장 큰 딜레마는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도 확대됐고 그에 투입되는 자원도 대폭 늘었지만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달체계가 시민들의 복지 수요와 제도, 자원을 제대로 연결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복지 수요자인 주민들과 가장 근거리에서 있는 읍면동의 복지 전문인력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수요자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올해 말까지 약 900여개의 읍면동을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허브로

개편하고 2018년까지는 전국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허약한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해 건강한 사회복지생태계를 이루려는 노력으로 환영할 일이다.

실질 그동안 복지제도 전달의 1차 관문 역할을 해온 읍면동의 복지 기능이 너무 취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읍면동별 평균 4명 정도의 인력이 여러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수많은 복지제도뿐만 아니라 청소·환경 등 일반 행정업무까지 담당하다 보니 소위 '복지갈때' 현상이 나타나곤 했다.

그런 환경에서는 주민들의 복지 수요를 심층적으로 파악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복지수요를 발로 뛰며 현장에서 발굴할 수 없으니 복지의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했다.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누수로 귀중한 복지자원이 허비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읍면동에 3명 이상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이뤄진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해 복지서비스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 복지팀이 방문상담 등을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하고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수요자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를 해결해 현장밀착형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의도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쟁거야 할 점도 있다. 우선 현재 계획하고 있는 복지전담 인력 증원 정도가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늘어나는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와 다양한 복지제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인력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앞으로 필요한 곳에는 인력을 더 보강하는 로드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인서비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인력의 전문성이다. 맞춤형 복지팀 인력의 사회복지 전문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효과적인 맞춤형 서비스는 불가능할 것이다. 인력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읍면동은 정부가 담당하는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핵심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에는 공적 전달체계의 외에도 다양한 민간의 복지서비스와 자원이 존재한다.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강화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민간 복지전달체계를 대체하거나 위축하게 해서는 곤란하다. 공공과 민간이 서로 담당할 역할을 명확히 하고 또 동반자로서 상호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충실히 진행돼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일대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사설

내년에는 희망의 태양이 솟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으로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온 나라가 떠들썩한 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최근 두달여 동안 매주 주말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촛불을 들고 광장을 모이려고 있다. 눈 비나 추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들이다. 전국에서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들의 외침은 대통령을 구속하고 하야하라는 것이다. 급기야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을 헌법재판소에 의뢰해 놓은 상태다. 전국민의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함에도 박 대통령과 강성친박은 아직도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전혀 잘못이 없다며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은 박사모 등을 동원해 반격에 나서려는 모양새여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생각

을 떨칠 수가 없다. 어찌됐든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세모의 김복에서 모든 것은 역사에 묻어두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싶다. 너 무나도 실망스럽고 한심스런 대통령의 작태를 알고 난 이후로는 더이상 정적이 희망을 걸고 싶은 생각이 없다. 새로운 희망의 태양이 내년에는 찬란하게 떠오를 것을 믿으면서 말이다. 올 한해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크나큰 허탈감과 극도의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그 크나큰 상심에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고 어려운 가정경제 하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은 모습에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믿는다. 이런 국민들이 있는 한 적폐는 단죄되어 사라지고 우리가 염원하는 밝은 사회 희망찬 나라는 반드시 이룩된다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온 국민께 박수를 보낸다.

'청년들의 비명' 이를 어찌나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가 두 달 연속으로 10만명대의 감소세를 보였다. 청년실업률은 11월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1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만 2000명 감소했다. 조선업 경기 둔화와 구조조정,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 7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5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특히 10월(-11만 5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10만명대의 감소세를 기록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8~9월 이후 7년 2개월 만이다. 전체 취업자는 2659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 9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날씨가 나빠 농림어업 감소폭이 컸던 데 대한 기저효과에 최근 경기호조를 보인 건설업 관련 취업자가 1만 1000

명 늘어난 영향 등이 더해진 결과다. 연령별로 60세 이상(31만 6000명), 50대(1만 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늘었고 40대(-4만 5000명), 30대(-2만 6000명), 20대(-1만 6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전체 실업률은 전년과 같은 3.1%였으나 청년층 실업률은 8.2%로 전년보다 0.1% 포인트 상승했다. 11월 기준으로 2003년 11월(8.2%)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제조업 부진,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신규 채용 위축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금 청년들의 실업률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다. 그렇다고 내년에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없다. 물론 세계 경기의 침체도 영향이 있겠지만 불확실한 국내 정치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진다. 정치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 청년들의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동학대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뿌리 뽑는 행위

기고



조필호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순경

이동 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아동 학대는 아동의 가정에서 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도 상당수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아동 학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된 아동 학대 건수는 총 2만 9천여 건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의 80%가 피해 아이의 부모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심리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동 학대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복잡한 현상으로 정의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살기가 어려워진 탓에 국민 대다수가 스트레스에 장악 되어 발생하게 된 사회적 질병의 한 가지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밀접하게 접근하여 아동 학대와 관련된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 보자. 우선 첫째는 부모 갈등 및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한다. 배우자에게 물리적으로 학대 당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식에게 아동 학대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두 번째로는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학대당하거나 방치될 확률이 더 높다고 한다. 그 이유는 임신강간에서 부모들이 취약해질 확률이 더 높고 아이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모 자신들이 겪었던 과거의 아동 학대 경험이다. 부모가 어린 시절에 아동 학대를 경험했을 경우 자식에게 심리적 학대를 가할 확률이 높어진다고 한다.

위와 같은 악의 고리를 부모들 스스로가 끊어 간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발생하는 대다수의 가정폭력은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에 의해 되풀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다. 최근에는 아동학대가 결국 아이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참혹하고도 끔찍한 결과물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와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 부터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아보자. 아동 학대가 발생하였다면 2차적인 피해를 추가적으로 입기 전에 아래와 같은 단계에 즉시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www.sc.or.kr) 굿네이버스(www.gooheighbois.kr) 꿈을 나누는 희망나눔드림폴(www.dreamful.or.kr).

로비스스전화법률상담센터(www.lhwis.com) 등이 있다. 아동학대의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10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임을 생각해 본다면 즉각적이고 완벽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로 대한민국의 초석들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것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

오늘의 소사

Table with 2 columns: Category and Content. Includes news items like '대중교통 안전사고 예방', '지역사회 봉사활동', etc.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E-mail: d-mail@ham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발행: 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인쇄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The Real concert V.O.S

한남대학교 성지관
12. 30. (금) 20:00



大田투데이와 함께하는

Happy New Year



Restart 2017 Début 20th

12. 31. (토) 23:00
한남대학교 성지관

홍경민

HONG KYUNG MIN CONCERT



같은 생각, 같은 신념

大田투데이와 함께하는

2016 송년 특집 콘서트

- # 본 할인권은 대전투데이에서 고객을 위해 제공되는 특별 상품입니다.
- # 본 공연의 티켓 예매는 전화예매만 가능합니다.
- # 본 할인권을 이용해서 좌석 예매를 한 경우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공연문의 1661-5875

R석 15,000원